大正九年十二月二十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陰曆辛酉三月二十八日(戊辰)　THE CHOSUN ILPO.　大正十年五月五日(木曜日)　第二百五十七號　(一)

朝鮮日報

發行所 京城府三角町七一番地 朝鮮日報社 電話二二五六番 振替口座京城四○九番
編輯兼發行人　印刷人

新舊科學의比較 (二)

要컨대萬能을期待하던科學도人智慾望의焦點에至하면寧히不能의事가多하야形式으로의說明과實行으로의消費권을術함에不過한觀이有하다如斯한、向것을消費科學이라謂하고元素를부터見하야分散科學이라謂함을得한바科學文明의生出後幾年이아직不久하야石炭石油等이多幸히아직貯藏되얏스니消費科學도其破綻을生치안이하얏스나時時刻々으로其量은寡히加速度的으로減少하는中인즉漸次減을豫想할ᄉᆞ록기々지窮迫하야來하얏다此趨勢는說明과分散을出치못한既往科學이必然遭遇할것이라玆에비로소覺醒하야新興科學의必要를生하고曙光이次第로明朗하게되는進展의主潮를說明에서實現으로分散에서收斂으로革新하는萬鍾이들인다我等은此新興科學을名하야集成科學又는收斂科學이라하노라

玆에消費科學과集成科學의關係를知키爲하야吾人의衣와此에與하는天産物의例로하야鐵을考究하야보자、由來로鐵이라는元素의地球에存在한量은酸素、硅酸、『알미늄』에次되는者인데『파岩石』者는地殼의約四%六『파세ㄴ트』로外其全量이라算하고此量은地球表面의固結한殼皮의大部分인所謂岩石圈의平均이되內部의溶融圈은比重의大함이며火山噴出의熔岩에徵하면一層含鐵이多量함으로思하니若前徑이千二百四十七里、八ー赤道上에서ー의地球의平均比重五六에서鐵의總量을算出하면其量이莫大할것은想像하기에餘하리라然而現在々지科學은含鐵五十『프세ㄴ트』以上으로濃集한者가아니면處理키不得하야此程度以上의것을鑛石이라하고不然한者를鑛石이안이라하는隨意의名稱으로分自己의弱點을擁護하얏고在來의分散科學은自然히五十『파세ㄴ트』々지에組成한것을暫開加味하야消費함에不過하얏다然而鐵鑛床의形成은人類發祥의以前인五十『파세ㄴ트』以上으로濃集한者는自然의程度가有하야探鐵과共히日々減量하는中임으로結局은地殼含有量의一部를合成함이안이면鐵에對한人類의不安은依然不絕되다此不安에刺激됨提되면서生하는것이收斂科學이되鐵元素의集成에現今으로부터逐히高한能力ー究極은地殼의鐵의合成ー을有할것이다

自然科學으로하야比較的發達의古한道程에在한植物學으로할지라도其『種』의起源問題芽等의微妙한現象에對하야는相應한說明을與하나人爲的으로는其創造를遂치못하고細胞의有하神秘作用이라稱하야其不可言할蔽하니實現의不完全한學說에는肯定과同時에一部의懷疑가有하다中에懷疑가新興科學의開拓을部門이오亦食糧에이다

觸하야現實問題에就하야考하야도初에科學의萬能을依賴的으로承繼한現代人은消費機로된人口의增殖에伴하야最近將來에資不足의憂慮를懷하고舊科學分散的傾向에滿足을得치못하야나人類가自己의擁護와子孫의繁榮을希望하는共通의潛在意志의自然流露일것이다

如斯히漸々既往의分散科學을收斂科學으로移할機運은萌하얏스나總히既躍的變遷으로自然의現象으로許치안이하고다시順序잇는位相을經치안으면안되니我等은新科學을生産을要하는各位相所要의『時』를短縮할것이라問題位時間에比較的多數의『動作』을함에在하다再言하면『時』를縮短하는것이다此目的을持한我等은新舊科學推移의課程으로하고어나期間의過渡時代後世에現代文明의評價尺이되는者ー를若期로하야體驗치안으면안될것이다玆에過渡現象의一例로最近에往及喧藉하는油頁岩의蒸溜作業을記하야見할가

階級爭鬪와民族爭鬪 (四)

將來를支配하는二個의力即革命의歐羅巴와復興의亞細亞는現在에相結하는少하야도精神的으로相結하는傾向이잇다各國의勞働黨은只今國民의要求에應接을與하며亦激烈히政府의政策에反對하야隷屬國民의內에民族自決을許하는露는舊露國內에民族自決을許하며波斯를助하며土耳其를援助하는도다此傾向은恐컨대共通壓制에對하야反對에서出한同情의基함도잇슬것이오或은一時의利害關係도잇스리로다然而何等의根底가恒久的으로在하지안으면兩者의提携는一時的의行動에일것이라假令革命露西亞가『조ー지아』又는『아제르바이잔』에『쇼비에ㅅ트』政府를建設하더라도若此等의政府가偶然的性質이有한다면換言하면過激主義가此等民族의本能、性格、思想中에在한深奧하야或은이와一致하야契合하는者가아니면此는決코永續할수업다又英國勞働黨이라도印度에自治를許한事는自己의抱負한社會的、經濟的、意味의進化를豫期한事이라然이나自治를得한印度는必히西歐의進化를그되로踏襲하는것이아니라或은英國勞働黨이夢想도안이한印度自治의社會的經濟的組織을實現할는지도不知하리로다

叙上의事情下에서吾等은恒久的秩序의確立을尙遠한未來에期待하여야하겟다今日의均衡은何等未來에永續的이아니오一時的假裝에다從하야吾等은如何한勢力이加하고或은如何한事情이抑壓하야蹶起의機會를與하는同時에는必히非常한事變이勃發할것을豫期치아니할수업다然이나吾等의至極히關心되는事는如何한事情이此等力을爲하야前路를開拓할가하는것이아니라其機運이成熟到來할時에一切의事情을利用하는것이다吾等이實로不知하야서니될事는彼等의前進하는方向과彼等의包容한意味로다社會主義的制度의發達과亞細亞의復興은無疑하고大變化를招來할것이나그變化는아즉人類理想의實現은아니다社會主義는今日보다더人類生活의大한平等과密接한關係가有하나若社會主義化가單히物質的일것갓흐면他의更히必要한者를失하고人類의機械的重한負擔을一層難堪케할는지不知하겟다亞細亞의復興도單히諸民族의獨立에依하야國際的均衡으로改定하고終할것갓흐면人類文化發展에何等本質的貢獻이無할것이다

然而只今世界를支配하라는以上二個의力은果然偉大한力이라歐羅巴의精神과亞細亞의魂을代表함다시希臘思想과基督教와鍛鍊하고更히科學에依하야練習된歐羅巴精神은知識과物質과生活의自由共同生活體에對한平等과連帶思想과感情과行動과實際友愛의實現함에依하야人類의進步又는完全을招來하기可하다는觀念에到達하얏다然而近世歐羅巴의努力은自動的으로此結果를生함만할社會制度를發見하고確立함에在하다

此에對한第一의方程式은個人的民主々義、政治的自由、法律平等의制度다然이나그結果는吾等이現時目擊함과如히慘酷한社會的不平等과經濟的掠奪이不斷의階級爭鬪黃金과器械와의唾棄할만한支配를生하기에終하얏다

斯와如하야只今第二의方程式이提示되엿다此는自然의不平等裏에理性과科學의力을依하야可及的絕對의平等을實現하라는者요共同生活에對하야可及的絕對要勞働을平等하게하고利益을平等하게하라는者이다

第二의方程式이第一보다成功할가否할가는一大疑問이니何故오此方程式은當初에는最苛酷한强制에依하야만支持될것이니少하야도人類는一時그自由를被奪될것이로다第二의方程式、提示者는精神에對하야實現치못할者는此를生活에實現하는事도不能하다는根本의難關을無視한것이라人生은먼精神에對하야自由가잇고平等이잇고融合이잇는者에만此로쇼生活에對하야自由平等友愛의實現을得할다此는不易의定則이라然而稟賦와本能에依하야恒常左右되고優越한思想과感情으로能히如何치못할者이라此를爲하야는深刻徹底한魂의革新이必要를認하기至하엿다然而今日에對한彼等의主力은尙今合理的方式과器械的能率의發見及實現에傾倒하야잇다

亞細亞는從來歐羅巴와如히社會的進步를爲하야全力을傾倒한事가無하다그至高의努力은實로內面的精神的自由의證得에存하고且此에依하야偉大한平等致一의精神的原理를把握하엿다然이나亞細亞는此原理를社會生活에實現하기爲하야努力한事가無하얏다그結果는內面的個人生活과外面的社會生活과의分離를招하얏다吾等은特히印度에서明白하게此悲慘한實例를見하얏다印度에서는精神生活에對하야勝者가社會的生活을遠離하야山林으로隱하얏다然而此出世間的禁欲生活은次第로彼等의證悟한精神的原理를硬化케하야遂히此로外人間社會에서는實現키難하게되고社會를離하야서야實現함을得하게되얏다

然而亞細亞는歐羅巴와多年의抑壓專制下에서現實의生活問題에不向함을不得하게되엿다又歐羅巴와는異한方法으로此를解決함必要가迫頭하엿다

亞細亞는歐羅巴의經驗한産業制度、그第一相인資本主義그第二相인社會主義를模倣하는지不知하겟다然이나如斯히하면亞細亞의復興은人類努力에何等面目을不加하게되리로다又는復興의亞細亞와革命의歐羅巴와의融合이兩者의最高理想、一內外兩面의自由平等友愛를實現할만한眞個의組織을生하는지도不知하겟다此가로今日吾等의抱懷할最大의希望이라(完)

『데모크리시』와勞働組合 (五)

『웨부』氏의名著『工業上의데모크리시』의最後章의一節을揭하건다

『政治科學의研究者도勞働者團結의經驗이『데모크리시』自身에對하야如何한意味가有한가를考察하는事에趣味를感할것이라第一로勞働組合運動、不屈不撓의努力을繼하야漸次國內에對한一大勢力이된것은『데모크리시』概念의範圍가擴張되야單히政治上의關係뿐아니라經濟上의關係々지包含함ー至한것을示함이라北米合衆國憲法의創案者도ー七八九年佛國革命의各黨派와如히彼等이城郭祭壇及王位에서放逐된個人的權力과彼等이今히製肘치못한農園工場鑛山、對한個人的權力間에何等의類似點이有함과如한것은想覺치못하엿다百年間의革命을經한今日에서도世界各國大多數의上流及中流階級의『自由主義者』는『데모크리시』와資本家專制의企業家間의矛盾을不知하는것은맛치『와싱톤』及『제파손』이『데모크리시』와奴隷制度間의矛盾을不語함과如함이라그러나『明確한意思表示치아니하는』多數의筋肉賃銀勞働者는當初부터別한意思를가지고잇섯다彼等은生産手段의所有者의選擇하는無拘束한權力筋肉勞働者가그命令하는條件으로서勞働치아니하면生活의機會를不與하는能力은裁判官의司法權과殆히影響이無한點의遠한王의支配에比較하야遙히多大한自由를奪하는者요又一層服從을强與하는者이라産業의支配者도往時의帝王과如히自己의個人的權利가干涉을被함만은理由를實로了解치못하도다然而兩者가共히自己의權利維持가社會를爲하야不可缺할者라고證明함은쉬운事가아니니産業에對하야如斯히獨裁政治에對한筋肉勞働者도過去一世紀間에漸次共意思를主張하여왓다結社의自由及工場法制定을爲하야運動함은實로産業王國에서憲法에對한要求에不外함이라團體協約의不性無性의承認과漸次細密하야가는勞働法規는此『마구나칼타』大憲章이『데모크리시』發達에從하야遂히凡百의筋肉勞働者의게與한事를意味함이라ー

勞働組合은産業에對한獨裁君主에反抗하는議會이며其團結權及團體協約權의確認은其憲法이오團體協約은其立法이라只此目的을爲하야眞議會에比較하면데모크리시의實施며是에優越한機關인事는先에議會의缺點을述한것을想覺하면分明할터이라此機關에依하야議會의活動이補足치못함에限하야『데모크리시』의實現은完全하다云키難하다吾人은更히一步를進하야勞働組合에由한産業生活의民主化의本質을究明하여야될것이다換言하면勞働組合의依한데모크리시라는것은直接『데모크리시』인가又는間接『데모크리시』인가의問題로『데모크리시』의此二種區別의重要한것에對하야는『하룬쇼ー』를利用하리라『英國에서는民全體가中間者를不置하고直接으로立法行政司法을掌한바直接데모크리시는오즉存在치아니하엿다英國의『데모크리시』는間接又는代議民主的政治라

奬忠壇所感

東洲生

宇宙는荒寒이며索莫이라그荒寒索莫의宇宙를吾人은痛切히悲哀로저하며또는深刻한怨恨으로써그宇宙를向하야怨함을말지안이하다荒空과索莫은반다시自然이다宇宙가안이요即狂風과惡雨와雷鳴電掣의修羅場에서그自然은宇宙를荒寒索莫케하얏다聽하라人의一世도宇宙와如한가大抵荒寒이나索莫은吾人이絕對的闘코저안이하는바요그光明이나會榮을希望할것이며企待코저한다宇宙는人生이안이요但只草木이나禽獸나虫魚로하야금安居케하면그光明과榮華가반듯시永遠埃塵과風雨에磨滅消沉될것이所謂人生이宇宙間에在하야그宇宙로서光明케繁榮케못하고반다시草木禽獸에서分棲하게될것이요人生의光明한宇宙라고謂키不能하리라그럼으로宇宙의荒莫함을매우怨코저하노라

彼奔然한彼終南山一角의東北에天의松檜蔚然히翠와갓흔滿々의深色을帶하고四時無改의高節을誇하는듯하며萬點桃花의零落殘紅은一場의繁華를寂寞한空山古道에啼鳥愁雲이凄境케低徊함仰케한다人生의榮枯消長은果然如何한運命에關하라하며人生은엇지松柏과如한四時無改의特節이안이고片々浮沉의落花流潮의逆旋에서委靡頹倒케하라余想像하다英雄의魂과落花의魂이一切都付了風과雨打에荒索莫의幻界에서吾人의弔古懷感을懷絕不堪케하도다彼荒寒索莫奬忠祠를見하라此는去開四年號에當時殉國의元老와及其他絕對的國家를爲하야그生命의犧牲에供한忠勇莊嚴의一代鬼勳으로써當時國家에서此를建設하고俎豆奠으로四時의享祀를執行하고享官은반다시當時陸軍部의元帥以下로將官等에專任하야그ー祭禮도極히隆莊神聖케行하되每春季의享時는더욱盛大하야群衆이君拜가有함으로當時京城에駐屯은兵馬와將士等은一齊히金光이燦爛한盛裝으로喇叭의聲徐々히現今黃金町一條의大道를進行하야光熙町東南으로入할時에軍馬의前提도셔傾都士女가可謂人山人海의奇觀을呈한다此時는幀門이極히嚴肅하다問奬忠祠大殿間을파開하고陸軍首腦等이各々就席한後에그正門西北으로는又戟을交置하며三軍은正히休憩의時며馬匹은저松陰과青草의堤岸에自由로嘶吃케한다移時元帥府總長以下各重要將星이環하고齊進하며士卒은一時奉銃의式을行하고祠前의廣場에重疊한陣形을展開한後에悲涼嚴正의祝詞를朗讀하며至하야一切幀門의形勢는山아水며變態를呈하다然而萬朶花紅과無限의松翠는검光帽影의間에서悠揚自在하더니라그럼으로吾人은當時의盛儀를至今々지잇지못할것이라所謂宇宙의荒莫은怨치안이할지라도그中人生의忠義々지荒凉、歸케함은반다시人生의道義가안임으로우리는가장痛切의遺限으로感覺한다忠義라하는것은何國과何人을勿論하고그國家나及其人을爲함은안이요반다시그忠義라하는것을爲함것이안인가그럼으로吾人은支那의寒食과端午、吊古의遺俗이支那를爲함이안이요반다시燒綿沉湘의忠義를爲함이라함이다則韓合併以來로當時國家制度는自然의沿革에至하얏다할지라도個人의忠義々지消滅의悲運에至케함은朝鮮人에게도다시忠義의道가絕對的無用의遺物이된다하야도可한가當局에서도朝鮮의文化를讚揚하야衰退한朝鮮을爲하야努力은有하고또한十字架의光明事業에安이나此等의表彰的光明事業에對하야一層希望하는바이나그러하고當局에서干涉치안이하면우리의社會에서라도當然히無하노라그러면그荒凉寂莫한忠魂을吊祠할것이며또그祠宇도幾乎頹破할愁雨凄風에在하다顚垣破壁의洗禮를受하야幾十星霜을經하얏고片石寸土의修理도無하얏고滿壁의蛇는暴風雨의滲漏餘痕이며荒凉蕪園는一向任하야其荒盡케하다吾野花啼鳥의捿息에人은此를見하면國家의興廢도고不諸하고其人의古今도고捨하고但只그忠義라하는大意義를景慕하는그럼으로吾人은반다시當局의同情을求하야그頹收되는建物을修補케하고그享祀는반다시朝鮮에서現今尊奉하는諸賢의祭祀와如히繼行코저하노라그러하고朝鮮各宗教나又는先儒의書院이나다ー往時의制度를存續케하노니奬忠祠만荒廢케함은吾人은眞實노遺憾으로思하노라

曉霧

五、

立憑虛作

房門이탁다치며그열븐조희와가는간살로된門이라도晶愛에게는鋼鐵이나盤石으로만든城門모양으로自己의힘으로도열어도볼수업고밀어도볼수업는것갓히스다그리서쓸어진그되로한참멍々히잇섯다가갑작히몸을일으켜밧그로나왓다

마음되로할것갓흐면두쥬먹을불근쥐고다름질을하겟것마는그리도그럴수는업는일이라겨우발자국만자조되ㄴ뿐이엿다

발서쾌만히걸어왓것만은花纈는어되로갓는지보이지안이하고구름을쓰스는비뒤바람이서늘하게그의뜨거운쌈을스치지니가며머리카락을날니고목을안고돌으차려니치고리를헤치고삼々々살구도걸어들어갓섯다晶愛는옷속하엿다

그는興奮은漸々식어오며알수업는붓그러운생각이일어나기始作한다길에지니가는알지도못하는사름이그의얼골을흘금々々볼적마다그의가삼은울넝거렷다그사름이自己의肺肝을쇠뚜러보는것갓하야견되근수업섯다맛치그사람들이『비가엇ㄴ男子의便紙를바닷지』라고물을것갓햇다그는고기를다숙이고옷깃이무人치리만큼이잘보이지안음으로넘우안길기를혼번들엇다그는왕작놀니엿다

저便에서어떤女人하나이々러를向하고걸어온다그女人은自己를가르치는三年級英語의師金先生인것갓흣다갓흔것이안이라꼭그인줄로만알엇다무슨큰罪나지은듯이그先生을만나기가붓그럽기도하고무섭기도하엿다

나왓던골목에들어서자적이安心이되는듯하엿다

한참걸어가다가그便紙를차자와야되겟다는생각이일어난다花纈가샷々々우서가며무갓々々한그便紙를피여보는양에또한이보인다

『그에가밥서그便紙를다보앗슬거야ー니가못본그것々시다보앗슬거야ー』미花纈가미울기로하고못그럽기로하고微々한嫉妬조차일어낫다晶愛는또몰쳐섯다그골목을나오자晶愛가멀니보고논난듯그녀인이그리로지나간다晶愛는또다시가삼이멀컥하엿나그런도그입은옷과신은두가죤先生은안이엿다그리고저싱각에벌누어틤을스스로우섯다

花纈의집이갓가와옴을ᄯ라또不安한생각이일어난다

『너가그집에들어가면花纈의어머니가왜왓느냐고물으면무에라고對答할가?』

晶愛는또이런걱정을하엿다

『그짓구진花纈가그便紙보고나서제어머니이며下人들々지에게라도그니야기를하지안햇슬가ー只今그집에서는우ㅇ리업시그니야기를하고웃는中이안일가ー그러면니가들어가면나를보고오죽이나우슬가ー니가무엇을하러왓지왓는고』後悔外지하엿나

花纈의집大門이보인다晶愛는自己를잡으라는惡魔나ᄂ것처럼몸을웃숙하고ᄯ돌지섯다

自己房에돌우와서는멀먼徒步旅行을한것처럼몸시心身이疲困하야괴운업시술어지고말엇다

『왜밥을안먹늬ー』그놈저녀ㄱ에晶愛의밥달게먹지안는양을보고晶愛의母親은걱정스럽게물엇다『네얼골이희근속하고나ー왜어데가압흐니ー』또이러케로물엇섯나눈에눌니ㄴ빗々지되고

긴속눈섭에덥힌晶愛의눈은감은듯이장운만붙은이엿다

솽뉴요도마시기전에큰房을나오는그의발길로하동々々한엿다

獨逸前皇帝의日記 (一)

和蘭의아메론게ᄂ古城에幽囚의身이되야感慨無限의淚로英雄의末路를悲歎하는前獨逸皇帝윌헤름은最近에幾十年間恩愛가深한前皇后『아우구스타、빅도리아』를永別하고花朝月夕에孤樓의歎을禁치못하며世事를全然排却하야樵客漁夫로晩年의友를作코저함인지近頃에至하야는伯剌西爾의荒凉한一小村落(人口三萬以內)에移轉하야老를送할事를荷蘭政府에請願하야許可를得코자하얏다嗚呼彼의前途가果然如斯하기千古有情兒로하야금一掬淚를可灑할것이다그러나元氣勃々한此獨帝는配所에在하면서도歷史의審判이有함을기前에世界大戰에自己가無罪함事를辯護하기爲하야其用心과行事를明白記錄하고編年體로一手記를作成하야其知友에게與하얏다最近에至하야此가世에發表됨미本報에도既히大要를報道하얏스나當時에其詳細한全文을得치못하야遺憾으로思하던바今에米國紐育『헤루드』紙에揭載되얏기玆에譯載하노라

然而此手記는千八百八十四年에始하야先히獨逸、大陸諸國及英國으로부터脅威를受한顚末을記하고千八百八十五年에는日露兩國이衝突擴大에忙殺하던事를書하고米國도亦同一한步調를取하야當時三國의海軍々備는獨逸을凌駕한事를記하얏다　越하야千九百○二年에는三國同盟의更新千九百○五年의條下에는英國이露獨을離間하야獨逸을孤立케함、英國外交政策의中心目的이라는報告가『쎄라人쎄른』로부터來한事를書하얏다　千九百○六年一月附로簡單히『쎄라人쎄른』의駐在英國武官과白耳義國參謀總長의會見을言하고千九百十二年에는三國同盟이更新된事를記하고十三에는白耳義陸軍大擴算、通過하야其陸軍力은十萬乃至十八萬으로부터一躍하야三十萬이되얏다書하얏다全文이簡潔勁健한一流의筆法으로千九百十四年에入하야益々活氣를帶하고개『정以前』各種不祥의前兆를發生한는되로其要點을列記한것이다

四月、倫敦에서銀行動員王貴畫

六月、英國의動員準備

七月十五日機動演習이라稱하고召集한露國軍隊는更히戰爭의目的으로召集되얏다

二十日、白耳義預備士官召集

二十三日、日은殆히到來하얏다墺國은『쎄르비아』로最後通牒을交附하얏다軍隊輸送船『마루쎄유』에向하고『모못고』『오루지루즈』發

二十四日、露佛兩國은同사、에와드、구레』로하야금公式으로決定手段에出코자計하얏다구레峻拒、露國外相『사쇼노프』駐露英國大使『푸키아난』에게露國動員은如何한事情이有하던지斷行한다告하얏다英國北海艦隊가셔도란드에集中하야獨國海岸를警하고『사쇼노푸』駐露『쎄르비아』公使에게告하야露國은墺太利가『쎄르비아』에對하야取하는侵略的行動을許치안는다云하얏다　駐露佛國大使는露國政府에對하야佛蘭西는露佛同盟條約의履行에忠함이可하다誓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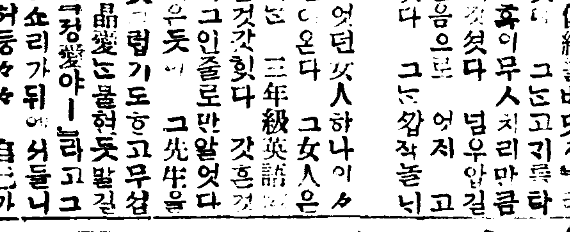
二十五日、佛蘭西總動員

廣告

四月三十日부터全部差換
米國政府委託映寫
一、實寫 씨데ー週報 全一卷
一、人情劇 米國유니바ー사루會社 메ー마리ー孃主演 黎明 全六卷
米國유니바ー사루會社 連續大活劇 雷岳의危難 第貳回 第四篇 第五篇 第六篇 恐怖의洞穴 不信의絕壁 苛責의木 四卷
優美館 電話 三三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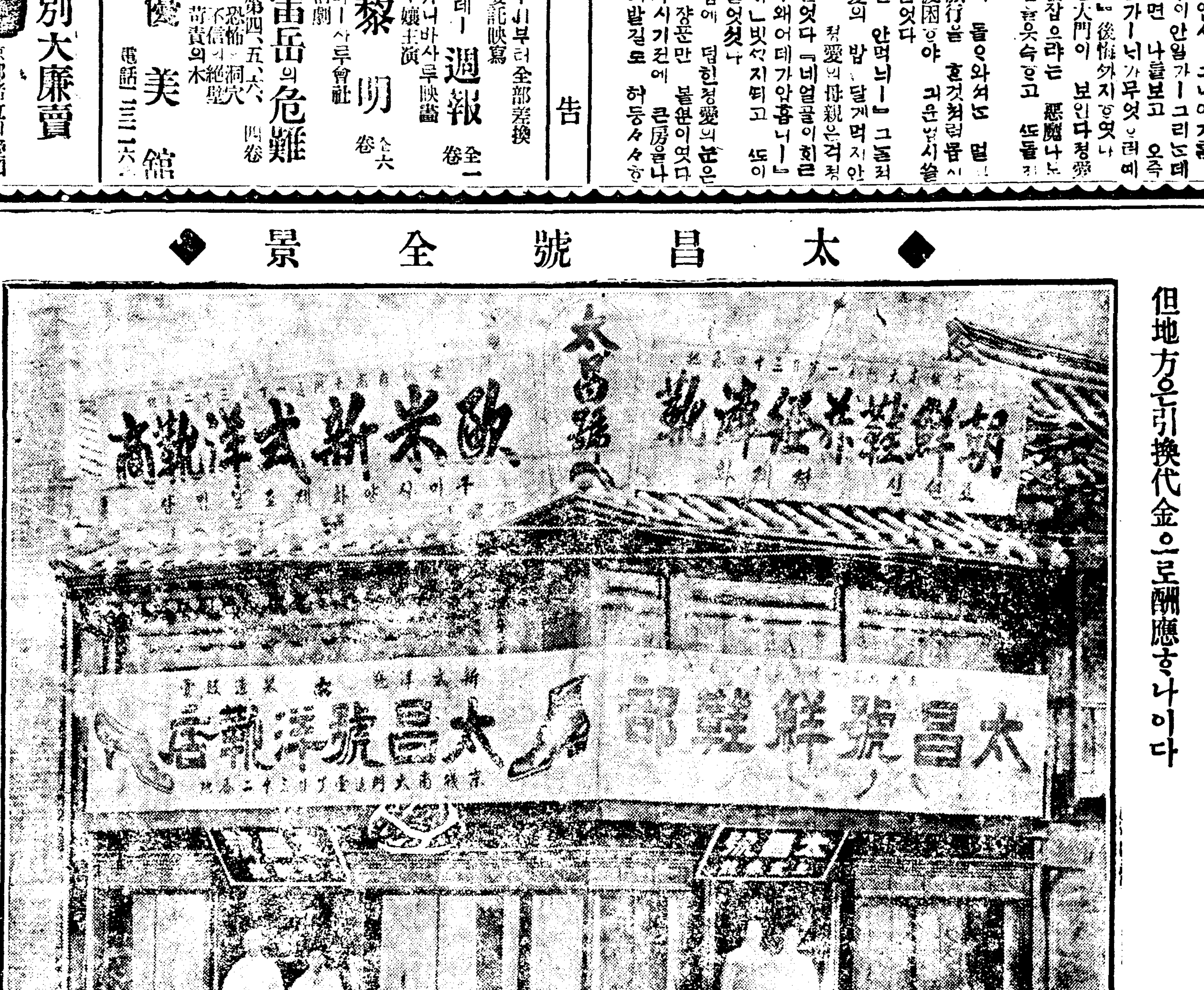
特別大廉賣

京鄕諸位의愛顧하신恩惠를萬一이라도報答코저하는旨로陰曆四月卅日々지는廉價로提供하기로自決하얏사오니紳士淑女學生小兒의需用할靴鞋等을一次試用하사陰曆설비음에光彩를니시기옹望합니다



京城鍾路四丁目壹貳壹番地
同昌鞋店
主 趙明俊 謹告

◆太昌號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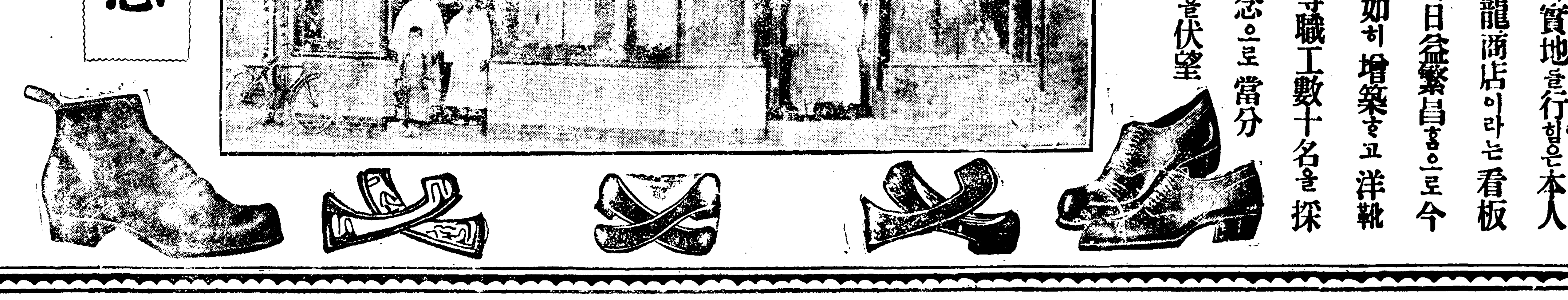
虛飾的投機的事業은絕對로返對하고正直과實地를行함은本人의目的한바올시다그結果로十餘年前부터金泰龍商店이라는看板下에서同胞諸賢의愛護하심을多蒙하와營業이日益繁昌함으로今般一層擴張키爲하와營業場所를左의寫眞과如히增築하고洋靴部、經濟靴部、鮮鞋部三部를設置하온바一等職工數十名을採用하와大々的으로製造發賣하옵는中增築紀念으로當分間廉價外의一割引提供하오니倍前愛顧하심을伏望

但地方은引換代金으로酬應하나이다

增築落成紀念

京城南大門通一丁目參四番地

洋靴 經濟靴 朝鮮鞋 商
太昌號
洋靴部 經濟靴部 朝鮮靴部 主
金泰龍



歐米情報

佛國軍動員令下

五月二日夜九時半에 倫敦最高會議의 結果 巴里에 佛國軍의 動員令이 發布되얏더라(巴里電)

米國海員大罷業

米國海員의 罷業은 今也全國에 瀰蔓하야 總同盟罷業을 行ᄒᆞ엿다더라(紐育電)

賠償原則協定됨

倫敦最高會議에서 獨逸에 對ᄒᆞᆫ 賠償原則이 協定되얏더라(倫敦電)

獨逸新通牒到米

米國에 獨逸의 新規通牒이 來ᄒᆞ얏는데 其內容에 依ᄒᆞ면 聯合國의 要求에 多少의 讓步를 ᄒᆞ얏더라(紐育電)

比島獨立黨首領聲明

「웃드」將軍使命에 關ᄒᆞ야

比律賓獨立黨首領『아기날드』氏는 比律賓獨立問題에 關ᄒᆞ야 一陳述書를 發ᄒᆞ야 此問題에 對ᄒᆞᆫ 攻擊을 排斥ᄒᆞ고『웃드』將軍及前總督『포오부스』의 態度를 辯護ᄒᆞ(야)「웃드」將軍一行이 比律賓으로ᄒᆞ야금 今後에도 오히려 米國의 治下에 置함을 贊成하기로 決定ᄒᆞ엿다고 傳ᄒᆞᆷ은 理由가 無ᄒᆞᆫ 風說이니 余는『포오부스』氏와 書面을 往復ᄒᆞ엿슴으로써 今回의『웃드』將軍一行의 使命이 比律賓을 爲ᄒᆞ야 最上의 利益을 保全ᄒᆞᆷ에 在ᄒᆞᆷ을 熟知하노라

(聲明)이 엇『아기날드』氏의 此態度는 米國委員을 援助ᄒᆞ야 其調查를 크게 圓滑케 ᄒᆞ는것으로 豫期된다더라(馬尼拉電)

支那政局

徐總統 南討 不同意

四月二十九日內務總長張志潭氏는 天津으로부터 歸京ᄒᆞ야 天津會議의 決議即大總統으로부터 南方討伐令을 下ᄒᆞᆯ것과 張勳氏를 討南總司令官으로ᄒᆞ야 南方討伐을 實行ᄒᆞᆯ 一件을 徐總統에게 報告ᄒᆞ엿는디 總統은 今日大總統이 南方討伐命令을 下ᄒᆞ는 것은 오히려 愼重ᄒᆞᆫ 考慮를 要ᄒᆞᆯ것이라ᄒᆞ야 承諾치 안이ᄒᆞ고 又張勳氏를 總司令에 起用ᄒᆞ야 南方討伐軍은 江西福建兩省으로부터 廣東에 進擊ᄒᆞᆫ다ᄒᆞ니 陳光遠李厚基兩督軍은 恐컨ᄃᆡ 同意치아니ᄒᆞ리라고 言明한 故로 張志潭氏는 當日深更에 急遽히 天津에 返還ᄒᆞ야 徐總統의 意見을 張作霖、曹錕兩氏에게 報告ᄒᆞ얏슴으로 天津會議는 三十日에 다시 討南問題에 就ᄒᆞ야 協議ᄒᆞ게되엿고 또 徐總統은 二十八日 天津會議의 結果ㅣ 張作霖氏를 始ᄒᆞ야 北方派의 督軍省長全部가 聯名으로 孫文討伐의 通電을 發ᄒᆞᆷ에 對ᄒᆞ야 中央政府의 權限을 蔑視한 것이라ᄒᆞ야 미우不快한 感을 抱한다더라(北京電)

靳總理辭意撤回

天津會議의 結果ㅣ 辭意가 잇든 靳總理는 張巡閱使의 慰撫에 依ᄒᆞ야 其意를 飜ᄒᆞ야 留任ᄒᆞ게되엿다더라(北京電)

各省借欵과 政府

北京政府는 中央政府의 許可가 無ᄒᆞᆫ 各省의 自由借款은 中央政府에셔 責任을 不負할 旨로 未久에 布告가 有할터이라더라(北京電)

獨支通商條約內容

領事裁判權拋棄承諾

獨支通商條約에 關ᄒᆞᆫ 公文書五通의 要點은 左와如ᄒᆞ다더라(北京電)

第一 獨支協定

(一)兩國은 互相公使를 派遣ᄒᆞᆯ事 (二)兩國各地에 領事를 置ᄒᆞ야 第三國의 外交官과 同等의 待遇를 與ᄒᆞᆯ事 (三)兩國人民은 互相兩國의 法律을 遵奉ᄒᆞ며 遊歷居住及商工業經營의 權利를 有ᄒᆞᆯ事 (四)關稅에 關ᄒᆞ야는 兩國의 內國法律에 依ᄒᆞᆯ事 (五)本協約으로써 正式條約의 根據로 ᄒᆞᆯ事 (六)本協約은 批准의 日부터 効力을 生ᄒᆞᆯ事

第二 獨逸聲明

(一)獨逸이 支那에 獲ᄒᆞᆫ바 一切利權及其他의 特權(靑島租借地山東鐵道와 如ᄒᆞᆫ 것)은 獨逸에셔 此를 支那에 還付ᄒᆞᆯ 能力이 無ᄒᆞᆷ (二)在支領事裁判權을 放棄ᄒᆞᆷ (三)北京의 獨逸公使館所屬練兵場에 關ᄒᆞᆫ 全部의 權利를 放棄ᄒᆞᆷ (四)支那가 獨逸軍人收容에 費ᄒᆞᆫ 費用을 償還ᄒᆞᆷ

第三 獨公文書

支那는 베르사이유 條約中 第百二十九條乃至第百三十四條의 規定賠償及滑車並天文儀返還以外에 更히 發生ᄒᆞᆯ수잇슬 共他의 權利를 享受ᄒᆞ기 可得ᄒᆞ되 獨逸은 此에 反對치 안이ᄒᆞᆷ(將來講和條約의 修正되는 境遇를 指稱ᄒᆞᆷ)

第四 質疑應答

(一)支那는 完全히 獨逸人의 財産을 保護ᄒᆞ고 다시 此에 干涉치 안이ᄒᆞᆷ (二)將來獨逸辯護士도 法廷의 許可를 經ᄒᆞ야 裁判에 出席ᄒᆞ야 補助ᄒᆞᆷ을 得ᄒᆞᆷ (三)獨逸貨物의 運輸는 當時 暫定的으로 本協約批准後直히 効力을 失ᄒᆞ고 此를 修正ᄒᆞᆷ (四)「베르사이유」條約第二百九十六條의 規程을 引用치 아니ᄒᆞᆷ

第五 解釋文書

支那側에셔 沒收ᄒᆞᆫ 獨逸人財産의 償還價格에 就ᄒᆞ야 意見이 一致치 안는 點이 잇슴으로 此解釋文은 아즉 確定치 아니ᄒᆞᆷ

極東關係

英特派使着智多

英國特派使節은 昨日에 到着ᄒᆞ얏는ᄃᆡ 同使節의 目的은 極東政府의 行動을 注視ᄒᆞ야 承認ᄒᆞᆯ 것이라ᄒᆞᆫ다더라(哈爾賓電)

萬國勞動會와 提案

第一回萬國勞動會議에 提出ᄒᆞᆯ 決議事項은 近間에 樞密院에 御諮詢이 잇스리라더라(東京電)

元老問題將解決

山縣樞密院議長의 辭表는 夙히 捧呈ᄒᆞᆫ바인ᄃᆡ 先是에 留任의 御聖旨가 有ᄒᆞ시고 原首相과 牧野宮相도 留任을 希望ᄒᆞᆷ으로 辭表却下는 다만 時期의 問題이나 松方內府의 辭表도 亦是同樣이며 山縣公의 勳爵及他功의 優遇拜辭는 旣히 聽許치 안키로 決ᄒᆞ얏슨즉 宮相은 西園寺公의 入京을 待ᄒᆞ야 事件을 過報ᄒᆞ고 갓치 元老問題는 全部解決되리라더라(東京電)

朝鮮關係法決可

三月開會 閣議에셔 朝鮮總督府水産試驗所官制及同警察官講習所官制改正의 件과 其他가 決定되얏더라(東京電)

駐日白國公使到任

新任白耳義公使알베르드、밧손베에르氏는 五日에 入京着任ᄒᆞᆯ 豫定이라더라(東京電)

海軍大演習期

本年度海軍大演習은 九月中旬에 日本海에셔 擧行키로 定ᄒᆞ엿다더라(東京電)

陸軍將官異動

五月四日陸軍將官에 左의 異動이 發表되얏더라(東京電)

臺灣軍司令官大將 柴五郞 補軍事參議官

參謀次長中將 福田雅太郞 補臺灣軍司令官

第三師團長中將 菊池愼之助 補參謀次長

參謀本部總務部長中將 武藤信義 補第三師團長

所澤長春飛行

一時는 無期延期로 風說々지 喧傳되든 所澤長春間大飛行은 五月下旬으로써 決行된다더라(東京電)

教育調査會附議事項內容

總督府臨時教育調査委員會는 昨四日에도 午前九時半부터 開會ᄒᆞ고 齊藤總督水野政務總監以下委員幹事가 出席ᄒᆞ엿는데 附議事項의 內容은 秘密에 附ᄒᆞ야 發表치 못ᄒᆞ게되엿스나 聞ᄒᆞᆫ바에 依ᄒᆞ면 學校系統에 關ᄒᆞᆫ 것이라云ᄒᆞ더라

釜山有志教育改善建議案(下)

三、學校의設置

一、普通學校는 적어도 一面一校를 速히 實施ᄒᆞᆯ事

二、官公立高等普通學校는 各道에 男女各一校以上을 設置ᄒᆞᆯ事

三、師範學校는 各道에 一校式 女子師範學校는 樞要地에 適宜히 此를 設置ᄒᆞ고 其生徒에 對ᄒᆞ야 官費를 支給ᄒᆞᆯ事 高等師範學校는 朝鮮中央地에 一校를 設置ᄒᆞᆯ事 但高等師範學校를 特設ᄒᆞ기 困難ᄒᆞᆫ 境遇에는 各專門學校又는 大學의 附屬施設로 中等教員의 養成에 關ᄒᆞᆫ 方法을 講ᄒᆞᆯ事

四、實業學校及專門學校는 適宜히 此를 設置ᄒᆞᆯ事

五、速히 大學豫備教育을 施ᄒᆞᆯ 高等學校를 設置ᄒᆞ고 次第로 綜合大學을 設置ᄒᆞᆯ事

四、教科用圖書

一、各學校의 教科用圖書使用의 範圍를 擴張ᄒᆞ야 總督府編纂及檢定의 教科用圖書는 勿論이고 文部省檢定의 教科用圖書는 다 使用ᄒᆞ고 其他의 圖書도 總督의 認可를 受ᄒᆞ야 使用ᄒᆞᆷ을 得ᄒᆞᆯ事

二、學務局編輯官에는 朝鮮人中有識者를 加ᄒᆞ야 教科書의 編纂에 參與케ᄒᆞᆯ事

三、普通學校의 教科用圖書는 國語讀本以外에는 모다 朝鮮語로 쓸 原則으로ᄒᆞᆯ事

四、普通學校用「朝鮮語及漢文讀本」中의 漢文材料는 全然히 削除ᄒᆞ고 純全ᄒᆞᆫ 朝鮮語讀本을 編纂ᄒᆞᆯ事 高等普通學校用「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은 朝鮮語讀本과 漢文讀本과의 分離케ᄒᆞ야 漢文材料는 從來의 것보다 其程度及分量을 低減ᄒᆞ고 其代身으로 朝鮮語讀本의 內容을 充實ᄒᆞ게 ᄒᆞᆯ事

五、모든 教科書는 趣味잇는 記述法을 取ᄒᆞ며 더구나 修身書、地理、歷史讀本과 如ᄒᆞᆫ 其材料를 多히 朝鮮事例에셔 採ᄒᆞᆯ것이며 又第一章教育의 綱領第一項의 精神主意에 留意ᄒᆞ야 此를 編纂ᄒᆞᆯ事

六、各學校에 使用ᄒᆞᆯ 完全ᄒᆞᆫ 朝鮮地理歷史教科書를 編纂ᄒᆞᆯ事

五、教授用語

一、普通學校의 教授用語는 國語教授以外에는 一切히 朝鮮語로ᄒᆞᆯ事

二、中等以上의 各學校에 教授用語는 日鮮語共히 制限을 不設ᄒᆞᆯ事

六、義務教育의準備

一、自今五年後부터 가장 向學心이 旺盛ᄒᆞ고 民度民力의 比較的 昇進ᄒᆞᆫ 地方으로부터 義務教育을 施行ᄒᆞ고 漸次로 各地方에 及케ᄒᆞ야 約十五年後에는 朝鮮全道의 義務教育制度를 完成ᄒᆞ도록 只今부터 其準備에 留意ᄒᆞᆯ事

七、私立學校의獎勵

一、政府의 施設에 係ᄒᆞᆫ 教育機關의 不足을 補充키 爲ᄒᆞ야 大히 私立學校의 設立을 獎勵ᄒᆞ는 때 左와如ᄒᆞᆫ 方法을 講ᄒᆞᆯ事

(一)私立學校設立의 手續及條件을 簡便케ᄒᆞᆯ事

(二)初等普通教育을 行ᄒᆞ는 私立學校로 適當ᄒᆞᆫ 位置에 在ᄒᆞᆫ 者에게는 其維持上相當ᄒᆞᆫ 補助를 國庫又는 地方費로셔 補助ᄒᆞᆯ事

(三)私立學校經營者에 對ᄒᆞ야는 政府는 恒常好意的態度를 持ᄒᆞ며 教員에는 官公立學校의 教員에 準ᄒᆞ야 優遇의 方法을 講ᄒᆞᆯ事

(四)官公立學校의 生徒又는 卒業生에 與ᄒᆞ는 特典은 可成的 私立學校의 生徒又는 卒業生에게도 均霑케ᄒᆞᆯ事

(五)私立學校의 使用에 係ᄒᆞᆫ 土地建物에 對ᄒᆞ야는 官公立學校와 同樣으로 租稅를 免除ᄒᆞᆯ事

八、學校職員

一、現在普通學校長에 朝鮮人을 採用ᄒᆞ는 範圍를 益々擴張ᄒᆞ며 又學德잇는 朝鮮人을 官公立中等各學校長에도 採用ᄒᆞᆯ事 此主旨는 漸次로 專門學校에도 及ᄒᆞᆯ것임

以上

釜山例月會々員及東萊有志

釜山府	草梁	尹炳浩
同	本町	崔泰旭
同	草梁	全鎬準
同	瀛洲洞	文尙宇
同	草梁	尹顯泰
同	埋立新町	金時鶴
同	本町	朴鶴壽
同	瀛洲洞	李靑
同	瀛洲洞	朴永禧
同	本町	權仁壽
同	富平町	丁相三
同	草梁	全秉鶴
同	本町	李根永
同	本町	張禹錫
同	本町	文錫鎬
同	本町	金烱贊
同	大倉町	崔演武
同	大倉町	崔保卿
同	本町	金成權
同	草梁	安熙濟
同	瀛洲洞	金鏞範
同	本町	金鏞萬
同	佐川洞	宋台觀
同	草梁	秋乃有
同	釜山鎭	金準錫
同	牧島	林炳貨
同	草梁	鄭箕斗
同	古舘	金局泰
同	草梁	金珪
同	本町	玄泳健
同	大倉町	宋起龍
同	本町	文永斌
同	本町	崔淳
同	草梁	洪鎬熙
同	本町	金潽壽
同	瀛洲洞	李圭直
東萊郡東萊面校洞		韓雲敎
同郡同面漆山洞		李熙寶
同	上	金秉圭
同	上	崔鉉培
東萊郡東萊面院里		金容祚

地方費豫算認可遲延과 一說

朝鮮各道地方費豫算案은 一々히 總督의 認可를 要ᄒᆞ되 每年四月下旬內에는 各其年度에 關ᄒᆞᆫ 豫算의 認可를 見ᄒᆞᆷ이 通例이든바 今年度는 旣히 五月에 入ᄒᆞ얏거늘 一道의 認可도 無ᄒᆞ고 다만 地方費豫算의 認可가 如此히 遲滯ᄒᆞ게됨으로 因ᄒᆞ야 各道各府에셔는 四月一日以降으로 이미 月餘되는 其間은 確定豫算案도 無ᄒᆞ며 다만 時日을 送ᄒᆞ는 模樣인데 元來地方費豫算과 如ᄒᆞᆫ 大部分은 地方民의 負擔ᄒᆞ는바오 今年度와 如ᄒᆞᆷ은 道評議會의 諮詢을 經ᄒᆞ얏다ᄒᆞ며 더구나 總督府는 地方費豫算에 人에는 一定ᄒᆞᆫ 制限을 設ᄒᆞ고 地方費事業에는 一々히 認可를 要케ᄒᆞ며 地方費吏員職員의 俸人數에는 道別로 指定ᄒᆞᆫ 故로 地方費豫算은 此를 各道當局에 委任케ᄒᆞᆫ다ᄒᆞ더라도 如何間總督府의 制限範圍를 超越ᄒᆞᆯ것이 아니고 또 一部에는 明年度부터 地方費豫算의 編成並執行을 各道에 委任ᄒᆞᆫ다는 說、府內에 現出ᄒᆞ얏다고 喧傳되는 今日에 大正十年度地方費豫算의 認可가 無ᄒᆞ다ᄒᆞᆷ에 至ᄒᆞ야는 地方行政의 振作이나 地方事業의 振興은 可望ᄒᆞᆯ수업스니 地方當局의 無爲無能도 其實은 所以가 有ᄒᆞ다 可謂ᄒᆞ겟고 總督府는 各道地方費豫算을 一月以上이나 案上에 堆積ᄒᆞ고 무엇을 ᄒᆞ는가 抑各道의 豫算을 總督府에 一括ᄒᆞ야 運用ᄒᆞ라 ᄒᆞᆷ과 如ᄒᆞᆷ은 事務가 繁劇ᄒᆞᆫ 今日에는 不合ᄒᆞᆫ 時代의 錯覺이니 宜乎監督官制度를 擴大ᄒᆞ던지 又는 適當ᄒᆞᆫ 方法을 案出ᄒᆞ고 地方費豫算은 各地方廳의 自由에 委任ᄒᆞ야 作成케ᄒᆞ되 總督府는 此를 監視ᄒᆞ고 其大體를 總攬ᄒᆞ는 態度에 出ᄒᆞ여야될지니 彼國費補助와 如ᄒᆞᆫ 것도 地方費豫算의 運用ᄒᆞ는 地方當局者에게 엇던 程度々지든 自由로 使用케ᄒᆞ더라도 또ᄒᆞᆫ 過誤는 無ᄒᆞᆯ지니 要컨ᄃᆡ 目今의 總督府는 干涉이 太過ᄒᆞᆫ 嫌이 有ᄒᆞ다고 某氏는 語ᄒᆞ더라

最近麥作狀況

鮮內本年麥作은 冬季、氣溫이 溫暖ᄒᆞ얏슴으로 因ᄒᆞ야 莖의 延長이 太過ᄒᆞ야 害虫等을 念慮ᄒᆞ얏더니 其後各方面의 情報를 綜合ᄒᆞᆫ건ᄃᆡ 生育과 結實이 모다 良好ᄒᆞ야 全北、慶北、黃海、咸南諸道의 旱魃을 除ᄒᆞ면 其他는 前年及累年에 比ᄒᆞ야 크게 良好ᄒᆞ다ᄒᆞ며 朝鮮에셔는 例年五六月中에 降雨가 少ᄒᆞᆫ 故로 麥作에 在ᄒᆞ야도 今後의 天候가 多大ᄒᆞᆫ 利害의 相伴이 有ᄒᆞ겟다더라

四月末鮮鐵在貨

四月下旬末鮮鐵在貨는 南行三千五百八十九噸・北行四千六百九十八噸・合計八千二百八十七噸인ᄃᆡ 前旬에 比ᄒᆞ야 三千五百三噸을 減少ᄒᆞ얏더라 此는 米豆는 少康을 持ᄒᆞ야 振치못ᄒᆞ고 豆粕肥料並其他가 모다 滯貨의 感이 稍有ᄒᆞ야 如許ᄒᆞᆫ 減少를 示ᄒᆞ얏고 品種別在貨噸數比增減의 主되는 것을 示ᄒᆞ면 如左ᄒᆞ더라(△은 減을 示ᄒᆞᆷ)

品名	噸數	較上旬과比增減
大豆	二五二	△七七
高粱	二二	△三二
米	四四二一	△一〇九四
玉蜀黍	八八	七八
粟		△五五
麥	七六	△四七
雜穀	三六	二
野菜	三	〇
果物		△一一
薪炭	一二三	△三七
石炭	一三四九	一三
石材砂利	一二八六	△六八〇
鑛石	二二五八	八二一
鹽	三三四	九八九
鹽干魚	二一八	△八四
木材	四七一	△三一六
豆粕		△三四七
麥粉		△二
砂糖		△一
綿織物		△一
세멘트		
石炭	三五一	九
金屬品	三一	△八五
繩叭筵	三九	△三〇
生牛	三五	〇
石油	二七	一
食料品	一	△一三
飲料品	一	〇
[illegible]		△一
綿		△二五
肥料	六	△一五二
其他	五八二	△三八七
社用品	一三八八	九
計	八二八七	△五〇三

國際交通會議經過確定案

國際交通會議는『바세로나』에셔 三月十日부터 四十日間의 豫定과 如히 四月二十日로써 終了ᄒᆞ얏더라 該會議는

一、交通及通過의 總會常設同委員會의 組織案

二、自由通過協約案

三、國際河川協約案

四、國際鐵道協約案

五、自由港決議案

等諸議題로 되얏는데 右五個의 項目은 總數十八個國의 專門家로 成ᄒᆞᆫ 交通會議를 千九百十九年九月巴里에셔 開ᄒᆞ고 作製ᄒᆞ얏든것을 今回에 다시 確定ᄒᆞᆫ 것이오 以下에 說明ᄒᆞ면 如左ᄒᆞᆷ

一、에 關ᄒᆞ야는 交通及通過의 總會는 聯盟理事會及同總會의 決定ᄒᆞ는바에 依ᄒᆞ야 開會ᄒᆞ되 常設國際交通委員會는 聯盟下에 常設機關으로 組織ᄒᆞ고 聯盟國으로셔 常設委員을 派遣ᄒᆞ야 國家의 主權을 害치 아니ᄒᆞ는 範圍에셔 모든 交通々過에 關聯ᄒᆞᆫ 爭議의 一切을 解決ᄒᆞᆯ 權能이 有ᄒᆞ며 日本도 此에 委員을 派遣ᄒᆞᆫ다ᄒᆞ며 右中第四案의 原文을 據ᄒᆞᆫ즉 交通委員四分之三以上이 取決ᄒᆞᆫ 議決의 討議에 必要가 有ᄒᆞ다ᄒᆞ얏스나 此에 對ᄒᆞ야 日本委員은 全權委員의 調印을 了ᄒᆞ고 다시 條約으로 批准을 得ᄒᆞᆫ 事를 要ᄒᆞᆫ다ᄒᆞ야 某國에셔는 此二重의 手續을 嫌ᄒᆞᆫ다는 者가 有ᄒᆞᆫ 結果ㅣ 別로히 追加調印을 容許ᄒᆞᆫ 特例를 開ᄒᆞ게되얏는데 旣히 調印을 完了ᄒᆞᆫ 것은(二)에는 十九個國이오(三)에는 十三個國에 有ᄒᆞ고 日本도 二個月後에는 審議를 經ᄒᆞ야 追加調印ᄒᆞ게 至ᄒᆞ겟다

二、에 關ᄒᆞ야는 日本의 主張이 尊重ᄒᆞᆷ게되야 國籍又는 差別을 附치안코 人船舶貨物等에 對ᄒᆞ야 均等의 取扱을 行ᄒᆞᆯ 自由의 確保가 一般採用되얏거늘 印度、阿弗利加及戰爭에 荒廢ᄒᆞᆫ 國은 反對ᄒᆞ야 異議를 陳述ᄒᆞᆷ으로 因ᄒᆞ야 幾分의 特典을 與ᄒᆞᆫ지라 本協約에 依ᄒᆞ야 完全히 自由인 條約이 有ᄒᆞᆫ 時는 該協約에 從ᄒᆞ고 又通商航路條約이 無ᄒᆞ더라도 本協約으로 航路의 確保를 認ᄒᆞ얏고 或은 通商航海條約의 制限이 有ᄒᆞᆫ 時라도 本協約의 效力에 影響이 無ᄒᆞ다

三、에 關ᄒᆞ야는 日本ㅣ 率先ᄒᆞ야 自由主義를 提唱ᄒᆞ미 希臘、和蘭、白耳義等海運國이 此에 附和ᄒᆞ고 佛蘭西、羅馬尼、波蘭、伊太利와 如ᄒᆞᆫ 非海運業國又는 自國內에 國際河川이 無ᄒᆞᆫ 國에셔는 保守的主張에 出ᄒᆞ고 英國은 印度에 國際河川이 有ᄒᆞᆫ 所致로 海運國이 됨을 不拘ᄒᆞ고 自由主義에 贊成치안코 折衷說을 主張ᄒᆞ얏스며 南米諸國은 從來自由主義임으로 亦是大勢에 順應ᄒᆞᆫ 態度를 示ᄒᆞ얏는데 本案과 如此히 純然ᄒᆞᆫ 自由主義를 提案ᄒᆞᆷ은 國際河川이 無ᄒᆞᆫ 所以라고도 云ᄒᆞ겟지마는 正義의 觀念에 基因ᄒᆞᆫ 것이니 左에 對ᄒᆞᆫ 論議는 가장 沸騰ᄒᆞ다가 原案에 多大ᄒᆞᆫ 修正條文을 添加ᄒᆞ얏다

四、에 關ᄒᆞ야는 歐洲의 鐵道가 錯雜ᄒᆞ야 其劃一이 가장 困難ᄒᆞ고 一方으로는『베룸』條約이 有ᄒᆞᆫ 故로 加一層自由됨을 要ᄒᆞ야 結局勸告案으로 原案을 可決ᄒᆞ얏다

五、는 對獨條約이니 自由港設置가 多數의 利害가 一致치안코 統一이 困難ᄒᆞᆷ으로 因ᄒᆞ야 勸告案으로 原案을 通過ᄒᆞ얏더라 故로 四五兩者는 德義上效力이 有ᄒᆞ더라도 調印의 必要가 無ᄒᆞ고 日本이 沿岸貿易開放을 提議ᄒᆞ얏지마는 保守國의 贊同치 아니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一般條約이 됨에 至치 못ᄒᆞ얏스나 國制的으로 交涉ᄒᆞ게 됨은 注目ᄒᆞᆯ 必要가 有ᄒᆞ다云ᄒᆞ더라(東京電)

司令官邸晚餐會

朝鮮軍司令官大庭大將은 今回司令部附로 被命된 義親王殿下를 龍山官邸에 招待ᄒᆞ야 七日午後六時三十分부터 晚餐會를 開催ᄒᆞ리라는데 陪賓으로 李鍝公殿下、齊藤總督以下朝鮮人側各將官、軍司令部各部長、參謀部員이 列席ᄒᆞᆯ터이오 六日夜에는 會田鎭海小森永興灣兩要塞司令官其他直轄各團長參謀等을 招待ᄒᆞ야 晚餐會를 開催ᄒᆞ리라더라

鮮銀支店長更迭

朝鮮銀行에셔는 五月三日附로써 左와如히 支店支配人의 更迭이 有ᄒᆞ얏더라

吉林支店支配人 後藤登丸

安東縣支店支配人을 命홈

哈爾賓支店(傅家甸)支配人代理 玉林徑純

吉林支店支配人을 命홈

奉天支店(新市街)支配人代理 井口俊彦

哈爾賓支店支配人代理를 命홈

哈爾賓支店 村田新一

支配人代理를 命홈

哈爾賓支店員 任吉貞人

奉天支店(新市街)支店支配人代理를 命홈

安東縣支店支配人 泉末治

依願解職

鮮銀券發行週報

四月二十四日부터 三十日々지의 鮮銀券總發行平均高는 一億三百一萬九千九百圓인ᄃᆡ 其正貨準備發行이 五千四百二十八萬二千七百二十五圓이오 保證準備發行이 四千八百三十三萬七千百七十五圓이오 最高發行이 一億四百七萬九千九百五圓이라더라

軍高級醫官會議

朝鮮軍高級醫官並藥劑官會議는 豫定과 如히 四日午前九時부터 朝鮮軍司令部內에 開催되얏는데 其日程은 左와如ᄒᆞ다더라

五日

午前 軍司令官訓示 軍々醫部長講演及注意事項 軍々醫部々員注意事項

午後 事務及陸軍省會議事項 要旨口達

六日

午前 提出意見에 對ᄒᆞᆫ 指示 事務要綱

午後 研究會(龍山衛戍病院內에셔)

六日午後研究會에는 衛生課長及總督府로셔 多數의 臨席者가 잇슬터이라더라

日本은 道德的死亡乎

五月二日東京發行國民新聞에 左와如ᄒᆞᆫ 短評의 一節이 잇나니

○種々의 災에 由ᄒᆞ야 個々의 人間이 不意의 死ᄒᆞᆫ 事가 잇다 反是ᄒᆞ야 國家는 不意에 亡ᄒᆞᆫ 事는 無ᄒᆞ니 반다시 亡ᄒᆞᆯ만ᄒᆞᆫ 理由가 잇셔 亡ᄒᆞᆫ다

○國家의 形體가 實際에 滅亡ᄒᆞ기 前에 國家는 먼저 道德的으로 死亡ᄒᆞᆫ다 國民의 志氣가 沈淪ᄒᆞᆫ 時 國家의 道德的觀念이 頹廢ᄒᆞ고 國民은 國家는 이미 道德的으로 死亡ᄒᆞᆫ 것이다 如此히 게되면 其形體가 亡ᄒᆞᆷ도 不遠ᄒᆞᆯ 것이다

○羅馬가 亡ᄒᆞ기 前에 羅馬는 道德的으로 死ᄒᆞ얏다 露西亞가 今日에 至ᄒᆞ기 前에 露西亞의 帝政은 極端으로 腐敗ᄒᆞ얏다 그것은 何人이던지 知悉ᄒᆞ는 歷史의 教訓이다

○日本도 今也道德的으로 死亡ᄒᆞ라ᄂᆞᆫ가 政治는 金權者流의게 左右되며 黃金의 害毒은 모든 政黨에 流行ᄒᆞᆫ다 不正事件은 各處에 摘發되고 有司의 惡은 될수잇는ᄃᆡ로 腥臭를 藏窟ᄒᆞ기에 猶且不足ᄒᆞᆫ 樣子이다

○上下에 醜事에 馴熟ᄒᆞ게되면 末이 되는 所以를 不知ᄒᆞ게 된다 滿鐵一件이 不起訴가 될는지 알수업다고 公言無憚ᄒᆞ는 大官이 잇다 이것은 國家가 道德的으로 死ᄒᆞᆫ 것을 見ᄒᆞ고도 오히려 尋常히 녁이는 그 비들이다 日本은 道德的으로 死ᄒᆞ라한다 이것을 思惟ᄒᆞ면 吾人은 一日이라도 安居ᄒᆞᆯ수업다

滿洲線委託經營廢止

滿洲線은 從來滿鐵에 委託經營ᄒᆞ든바 此를 廢止ᄒᆞ고 乘車券의 通用期間內에는 途中의 何驛에셔던지 任意로 下車ᄒᆞ야 途中往返에셔 乘繼ᄒᆞᆷ을 得ᄒᆞ게 ᄒᆞ얏더라

諏訪敎諭榮轉됨

咸興商業學校敎諭 諏訪原義衛氏는 多年同校를 爲ᄒᆞ야 盡力ᄒᆞ든바 今般義州商業學校々長으로 榮轉되야 四日午後京義線急行列車로 任地를 向ᄒᆞ야 出發ᄒᆞ얏다더라

文藝大講演會

朝鮮佛敎靑年會의 主催로 五月六七兩日에 亘ᄒᆞ야 京城府內壽松洞覺皇寺에셔 下午八時부터 文藝大講演會를 開催ᄒᆞᆫ다는데 入場料는 一十錢式이오 當日의 複雜을 避ᄒᆞ기 爲ᄒᆞ야 入場券은 鐘路의 以文堂、新文館에셔 發賣ᄒᆞᆫ다ᄒᆞ며 演題及演士의 氏名은 如左ᄒᆞ더라

六日演題 / 演士

佛敎와 朝鮮文化 金道泰

淸朝文學 [illegible] 梁建植

七日演題 / 演士

劇의 藝術上價値와 社會의 交涉 尹敎重

民聲

△一百萬이니 一百七十萬이니ᄒᆞ는 滿洲居住朝鮮人은 昨秋以來로 支那人地主의 不法契約解除를 當ᄒᆞ고 各種의 虐待를 受ᄒᆞ되 其一部分은 住宅이 無ᄒᆞ고 食物이 無ᄒᆞ야 悲慘ᄒᆞᆫ 境遇에 在ᄒᆞᆫ 中 奉天省管內潘陽新民兩縣四十餘村에 居住ᄒᆞ는 約三千餘人의 朝鮮人은 危境이 非朝即夕이라ᄒᆞᆫ다 △于先其近因인즉 昨夏二回의 降雨로 滿洲의 米作이 全滅ᄒᆞ얏는ᄃᆡ 支那人地主는 朝鮮人小作人에 對ᄒᆞ야 慘酷히 農始時에 貸與金返還을 强迫ᄒᆞ고 家屋立退를 暴力的으로 要求ᄒᆞᆷ에 견ᄃᆡ지 못ᄒᆞ야 道路에 栖屑ᄒᆞ는 慘狀인즉 呼訴無處의 此窮民을 救濟ᄒᆞᆯ 活佛이 何處에 在ᄒᆞ냐 △朝鮮의 當局이나 民間에셔는 彼饑死에 陷ᄒᆞᆫ 同胞를 視而不見ᄒᆞ고 聽而不聞ᄒᆞ는 듯ᄒᆞ다 △그러고 보면 所謂一視同仁이라는 根本精神에 違背되는 重大問題ㅣ오 또 大陸發展이라는 方針도 無視ᄒᆞᆷ이 極ᄒᆞ다 日本의 滿洲發展에 前導者된 朝鮮人이 緊々把握ᄒᆞ야 잇는바 朝鮮에 在ᄒᆞᆫ 日本官憲은 此를 袖手傍觀ᄒᆞ고 滿洲에 在ᄒᆞᆫ 日本官憲은 朝鮮人을 支那人同樣으로 取扱ᄒᆞᆫ다 否라 도로혀 虐待의 傾向이 有ᄒᆞ다 △官憲의 口實은 在滿朝鮮人中에 往々不平分子가 잇셔 本方針을 阻害ᄒᆞ는 者에 對ᄒᆞ야 救濟ᄒᆞᆷ이 必要가 無ᄒᆞ다ᄒᆞ나 此는 千의 一 萬의 一에 不過ᄒᆞ고 其他는 朝鮮內地에셔브터 生活難에 驅逐되야 滿洲沃野라는 風聲을 憧ᄒᆞ얏다가 如此ᄒᆞᆫ 慘境에 陷ᄒᆞᆫ 淳朴無瑕ᄒᆞᆫ 太古農民이 안인가

商況

仁川期米

三日後場(保勢)

前場은 高値二十一圓六十九錢으로 止ᄒᆞᆫ 後大阪前場이 四十錢々지 低ᄒᆞ얏고 後場初付가 數丁低ᄒᆞ게 入電되얏고 當地人氣도 元來弱含이든터이라 얏고 後場은 立會ᄒᆞ더니

▲第一節 當限不成에 中限은 二十一圓七十錢이 公定이니 前止보다 十三丁이 低ᄒᆞ고 先限은 一部軟弱ᄒᆞ더라

▲第二節 當限不成에 中限은 七十錢에 始ᄒᆞ야 七十錢을 安値로 七十三錢에 止ᄒᆞ고 先限은 四十九錢이 公定이니 前止보다 七丁이 低ᄒᆞ더라

▲第三節 當限不成에 中限은 七十一錢에 止ᄒᆞ다 多少에 買物이 現ᄒᆞ야 八錢이 잇고 大錢에 止ᄒᆞ다

▲第四節 當限은 二十一圓三十五錢에 寄ᄒᆞ야 一丁式上向ᄒᆞ야 五十四錢에 止ᄒᆞ다

▲第五節 當限不成에 中限은 七十一錢에 寄ᄒᆞ야 七十錢이 잇고 先限은 四十九錢에 止ᄒᆞ다

初付	二十一圓四十九錢
止値	二十一圓五十錢
高値	二十一圓五十七錢
安値	二十一圓四十四錢

公定價格	
一節	二十一圓四十九錢
二節	二十一圓四十六錢
三節	二十一圓五十三錢
四節	二十一圓五十六錢
五節	二十一圓五十錢

三日取組高

五月限	一三、九〇〇石
六月限	五〇、〇〇〇石
七月限	一六、九〇〇石
賣買總石數	二〇、一〇〇石

四日前場(先高後低)

昨日後場은 大阪少許變動이 잇스나 當地는 人氣甚히 弱ᄒᆞ야 高値五十七錢으로 四十四錢々지 저ᄒᆞᆫ 後今朝天氣晴에 大阪東京이 共히 五十錢으로 四十四錢々지 低ᄒᆞ고 昨日後止와 大差업시 報來ᄒᆞᆫ 故로 當地人氣도 亦是昨日과 同樣으로 立會ᄒᆞ다

▲第一節 當限不成에 中限은 二十一圓七十八錢이 公定이니 昨日後止와 同樣이오 先限은 軟事에 一部는 最初五十錢의 暴割에 呼聲도 有ᄒᆞ얏스나 ⑦⑪〇等多少買

仁川大豆

三日後場(保勢)

前場은 十三圓二十二錢으로 五錢々지 잇고 는다 二十五錢에 止ᄒᆞᆫ後今後場亦是前場과 如히 依然히 保勢에 狀態로 立會ᄒᆞ니

▲第一節 十三圓十九錢에 寄ᄒᆞ야 二十錢에 止ᄒᆞ니 價中에 差도 別無ᄒᆞ얏슴은 더러 賣買石數도 極히 少ᄒᆞ더라

▲二節 賣買皆無

止値	十三圓二十二錢
高値	十三圓二十二錢
安値	十三圓十九錢

公定價格	
一節	十三圓十九錢
二節	十三圓二十錢
三節	
四節	
五節	
六節	

三日取組高 三、二〇〇石

賣買總石數 一、七〇〇石

四日前場(無勢)

京株市場賣買價(四日)

株名		今週中前場	今週中後場	來週中前場	來週中後場
京取	寄	六〇五	六〇五	六一〇	六一九
	引	六〇五	六〇四	六一〇	六一七
外銀新	寄	一六〇	一六〇	…	…
	引	一六〇	…	…	…
東株新	寄	一六〇	一六七	…	…
	引	一六〇	…	…	…
東拓新	寄	二三〇	二三〇	…	…
	引	…	二三〇	…	二三〇
仁取	寄	四	五二四〇	…	…
	引	…	…	…	…
鮮銀	寄	二五〇	二五〇	…	…
	引	…	…	…	…
同新	寄	四三〇	四三〇	…	…
	引	…	…	…	…
殖銀	寄	五二五	五二五	…	…
	引	…	…	…	…
實銀	寄	九四〇	九四〇	…	…
	引	…	…	…	…

株名		今週中前場	今週中後場	來週中前場	來週中後場
商銀	寄	五八五	五八〇	…	…
	引	…	…	…	…
同新	寄	一四五	一四二	…	…
	引	一四五	…	…	…
漢銀	寄	一七〇	一七〇	…	一七五
	引	…	…	…	…
朝新	寄	九二	九〇	…	…
	引	…	…	…	…
韓一	寄	三〇〇	三〇〇	…	…
	引	…	…	…	…
東拓	寄	五七五	五七五	…	…
	引	…	…	…	…
鮮土	寄	二三〇	二三〇	…	…
	引	…	…	…	…
朝紡	寄	一九五	一九〇	…	…
	引	…	…	…	…
滿毛	寄	一四〇	一四〇	…	…
	引	…	…	…	…
京電	寄	四八〇	四七九	…	…
	引	…	…	…	…

株名		今週中前場	今週中後場	來週中前場	來週中後場
東新	寄	三三〇	…	…	…
	引	…	…	…	…
朝興	寄	七四〇	七三〇	…	…
	引	…	…	…	…
東亞	寄	三五〇	三〇〇	…	…
	引	…	…	…	…
朝煙	寄	三九〇	三九〇	…	…
	引	…	…	…	…
朝紙	寄	一五〇	一五〇	…	…
	引	…	…	…	…
朝郵	寄	…	…	…	…
	引	…	…	…	…
殖鐵	寄	九〇	…	…	…
	引	…	…	…	…
中鐵	寄	三〇〇	三〇〇	…	…
	引	…	…	…	…
南鐵	寄	二六〇	二六〇	…	…
	引	…	…	…	…
同新	寄	一四五	一三五	…	…
	引	…	…	…	…

米豆餘話

◆人氣로 참 무서운 것이야 昨日前ᄂᆞᆫ 도 紹介ᄒᆞ얏거니와 大阪日에 時勢가 더 모 異常ᄒᆞ나 去三十日々지도 大阪이 八圓에 瞬門을 너머 十五錢々지 잇슬 때에도 仁川時에는 僅히 六十九錢々지 밧게는 업섯고 그 後에는 大阪이 十錢或 메人錢에 셔 小保合할 때에 當地는 四十錢 五十錢을 臺ㄴ 이 엿다 ◆이에 對ᄒᆞ야는 누구나 異常ᄒᆞ게 生覺ᄒᆞ기는 ᄒᆞ나 人氣관 엇절 수 업는 터이니 어찌 잘 되던 니그 날 後場에 엇던 親舊가 損을 보고 화를 내여 ᄒᆞᄂᆞᆫ 말이 ... 會社에 對ᄒᆞ야 無責任ᄒᆞᆷ을 말ᄒᆞ고 軟軍에 頭目에 게 對ᄒᆞ야 보밀ᄒᆞ고 돈 ... 에 對ᄒᆞ야 한 同은 또 건 바진 ... 말ᄒᆞ다 ◆요보와 ᄒᆞᆯ 수가 업다고 니 직 게 발이 들게 ...

美國 ... (二十世記新進活動家에 愛用ᄒᆞ실 洋靴는 此社會에셔 賞讚을 맛는 ... 地方注文 ...

滿堂和氣中에 遠方珍客과 邂逅

빈명에 가가운 경성유지는 호당에서 손님과 서로 담소

벌경에 명칠깃흔 일반시내유지 계되얏더라 녕변히 총무 의상 의회삼위로부터 돌어온 우 적(李商在)씨가 긔회를아 蔡寓 리 됴선학성단 힝에 디흔 환 오판군의 긔로를 봉ᄒᆞ야 로국 영회도 입의 작뎡ᄒᆞᆫ 바와 갓치 지어ㄴ 최군의 간단한 긔도가 잇 난삼일하오네시 반에 시닉회동 손후에 윤치호(尹致昊)씨의 가 관료리뎜으로 정중ᄒᆞᆫ 계 긔최되 년ᄒᆞ 기회사(開會辭)가 잇섯고 엿섯는듸 하오네시 권부터 주 빈(賓)되는 학성단일힝 윽반가히 빗나라는 유지들은 젼차로 모혀들기를 시작ᄒᆞ야 빈ᄉᆞᄋᆡ 갓가혼 주인들은 한당에 가득이 모히ᄂᆞ 손님들기ᄃᆞ리게 되얏다 작뎡한 뎡각에 쥬빈의 일힝이 착석되자 쥬인측 일반은 ᄯᅥ듯흔 악수로써 손님을 영졉ᄒᆞ야 사리에 안니ᄒᆞᆫ 후에 주킥이 모다 흔갓치ᄒᆞ고 은근ᄒᆞᆫ 담화를 나누며 서로々 즐기며 우스다가 식당시간을 ᄯᅥ러 이층으로 손님 인도ᄒᆞ야 담박한 식탁을 마조ᄃᆡᄒᆞ

그다음에는 윤익선(尹益善)씨의 별々흔 환영사(歡迎辭)가 잇서 만당 주킥간에 직지 안케 ᄯᅩ디뎐에 그다음에도 기라유지 제씨의 축사가 잇섯스며 ᄯᅩ 이 일힝에 ᄃᆡᄒᆞ야 답사와 갓치 감ᄉᆞᄒᆞᆫ ᄯᅩ々 표ᄒᆞᆫᄃᆡ 리경석(李景錫)군의 인사를 돌이엿스며 역으로 간단ᄒᆞᆫ 인사를 ᄒᆞ고 거나리고 온 단장 리강(李剛)씨의 이번 일힝의 고국에 도라오게 된 동긔와 리유를 말ᄒᆞᄂᆞᆫᄃᆡ 그 진정(眞情)을 토로ᄒᆞ야 우레와 갓흔 말을 돌이워 반으로 큰 느ᄭᅵᆷ과 젹지안은 시로운 인상을 주엇더라

李剛氏의 吐眞談

지전뭉치를 질머지고 우리는 모다 거지가 되엿다는 말

우리의 일힝을 위ᄒᆞ야 이와 갓치 크신 성의로써 경성유지의 마자 주심을 입기를 어ᄂᆞ번 ᄭᆞ지 저의 일운 바 그ᄯᅢ도 ᄒᆞᆫ 신사랑에 감격ᄒᆞᆷ을 무엇이라고 입으로 다 농히다 표ᄒᆞᆯ 수 가 업습니다 우리는 처음서 빌리아를 ᄯᅥ나 쉬멈 나々

고국의 다정

우리 일반은 고국을 바라고 ᄯᅥ나올 ᄯᅢ에 성각의 가를 우리 일힝이 지금에 고국을 바라고 ᄯᅥ나기로 호지만은 우리는 우리 동포를 맛나 드리도 넉々ᄒᆞ 동정흔 한지 못

흔 산천을 포는 누구를 론ᄒᆞ고 다만흔 모ᄒᆞ는 식이라도 무서운 바회를 입지 안은 사람이 업스며 ᄯᅩ는 로국화폐(貨幣)란 것의 신용이 영々락 ᄯᅥ되여 숙단에 흔지 만량이라도 쓸데업다는 말과 갓치 우리는 조리로 만든 돈만

흔 짐식 질머지고 거지가

된 우리이올시다 그러케 흔 집을 잔득 질머지드리도 실상은 일본 돈 프리로는 단돈 몃닙이 못되고 보니 먹을 것 업고 돈 업는 거지 가 될 수 밧게는 업고 ᄯᅩ 라서 자손 교육을 무엇으로 식힐 힘이 업시되 얏습니다 지금 더 곳의 현상으로 말ᄒᆞ면 우리 동포 즁에(바ㅇ)한 기를 변々히 어더 먹지 못ᄒᆞᄂᆞᆫ 사람이 그 얼마인지 알 수 업는 비외다 그런ᄒᆞ야 우리는 돈 ᄯᅩ 문은 시고 학을 ᄒᆞ며 고싱을 ᄒᆞ는 가운데 리의 형편을 고국에 도라가 들어오쇼 연이 ᄒᆞ야 볼 가ᄒᆞ고 바이올시다 「以下省略」이 와 갓치 토진을 ᄒᆞ는 리강씨의 렬변 과 연일 힝들을 위ᄒᆞ야

동경의 눈물

을 금치 못ᄒᆞ얏고 그 다음에 ᄂᆞ 경성일보(京城日報)디원 리무 大原利武씨의 환영사가 잇슨 후에 주킥

海參威 音樂團 出發

작일오전에 평양 오르향ᄒᆞ야 출발

회삼위학성음악단(海參威學生音樂團) 일힝은 예명과 갓치 작四오전구시오십분 남디문역발렬차로 평양으로 향ᄒᆞ야 출발ᄒᆞ얏 ᄂᆞᆫᄃᆡ 뎡거장에는 각신문사원과 기라유지 제씨의 송영이 다수ᄒᆞ 얏스며 ᄯᅩ 이 일힝에 ᄃᆡᄒᆞ야 전일보 도ᄒᆞ바와 갓치 각 유지 졔씨로부 터 기부ᄒᆞᆫ 동졍금과 부흔 씨명 파금 이 이 아래와 갓더라

湖西旅館	二十圓也
朴容均氏	十五圓也
李容汶氏	二十圓也
張鳳玉女史	二十圓也
韓貞目氏	十圓也
尹致昊氏	二十圓也
李時元氏	十圓也
公孫樹氏	十也
朝鮮匠育會	二十也
李濟영氏	十圓也

이 식사를 마치고 오ᄒᆡ청으로 나려와 조선 정악연습소 (朝鮮正樂傳習所) 의 후의로 조선 고유의 음악을 손님에게 보이여 동삼시경에 화긔는 한층 예산회되엿더라

滿州에 移住한 四十萬의 朝鮮人

지나인으로브더 토디경작을 봉궁

압록강부근 봉텬성동변도(奉大省東邊道)에 옴기여 간 조선사람 현지의 실수는 약 사십만 명의 다수에 달ᄒᆞ며 금々지조 션인으로부터 기간(開墾) 호수 션은 십오만정보에 달ᄒᆞᆫ다ᄂᆞᆫᄃᆡ 그 토디쇼작에 ᄃᆡᄒᆞ야ᄂᆞᆫ 금번에 이 트려 거위다 쇼작의 긔한이 만료 되얏ᄂᆞᆫ듸 요사이 지나사람으로 부터 조선사람에 ᄃᆡᄒᆞᆫ 감졍은 현저히 변화되야 조선인의 쇼작 계약을 계속ᄒᆞ야 주ᄂᆞᆫ 것은 절ᄃᆡ 도 질겨ᄒᆞ지 안이홈으로 부터 사십만명의 다수ᄒᆞᆫ 조선사람이 쥬 랴의 싱활은 엇더ᄒᆞ게 될 ᄂᆞᆫ지 다 봉텬 잇서 조선인 보호로 일본인

가 일을 으로 안군에 디ᄒᆞ야 ᄯᅳ 수 한 조사를 ᄒᆞᆫ 후에 안씨 와 긔 계에 디ᄒᆞᆫ 지식 어 의외에 정 화긔ᄒᆞ며 그 의주밀한 자격을 찬성ᄒᆞ고 즉시 교장의 입학을 허가 ᄒᆞ얏는듸 갈사록 청숙 진보 되ᄂᆞ 그 의 학술은 교장의 긔더ᄒᆞᆫ 면바와 갓치 십 귀일만에 비력되ᄂᆞᆫ즁이 비형 (卒業飛行) 을 맛치고 훌륭ᄒᆞᆫ

獨立青年團檢擧

시긔를 기다려 활동ᄒᆞ라 다가 맛춤ᄂᆡ 잡히고 마러

디평 구년 팔월 중에 평안남도 강동군 (平安南道江東郡) 서 야 촌회 (大韓國民會) 국민회 회원 이 한 의 회원들이 된 쇼교 신자 이 인이 비밀히 단결 ᄒᆞ고 조선 독립을 위ᄒᆞ야 ᄒᆞ고 목젹은 ᄒᆞ고 흑 누리 도 그 갓 치 나 안이 될 가 염 ᄃᆡᄒᆞ야 단 뷔 의 명부와 및 규측을 불살 ᄂᆞᆫ 후 에 덕으로 거사 코져 조흔 시 긔 만 엿보고 잇던 티 조독 립청년단은 비로쇼 금춘에 이르러 그 단 원 가 발각되야 맛참닉 지난사월 경 그 단원의 반수이상이 당디 경찰 서 에 쳬포되엿다 도바 이제 그 단의 시말을 자세히 긔록ᄒᆞ 건 ᄃᆡ

작년음력

칠월하순경에 아직 ᄃᆡ포치 못한 동단 단장 김 의 우 ᄃᆡ 아 (金大杉) 한쇼 교북 (韓巡福) 의 두 명 이 강동군 고 천면 티 리 (高泉 面道德里) 야쇼교회당에 일으 려 김타용에게 더 ᄒᆞ야 조 선독 립에 시긔간 금홈을 말홈 후 조직을 권 고 ᄒᆞ 한독립청년단의 조직을 권고ᄒᆞ 야 도디여 김타용은 쾌히 허락 ᄒᆞ 고 곳 김두용이하 구명 과 의 ᄒᆞ야 우란을 회그실 이 조직 ᄒᆞ 후 동단의 규측 제 뎡 파 및 단 취 명부를 ᄎᆡ작ᄒᆞ 고 각々서명 날 인ᄒᆞ 고 금건을 모으 동 단의 적 립금을 쇄운 후 상 히 가 명부 와 련락을 밋고 항상 ᄡᅢ만 기다리던 작년 십이월 경에 동군에서

평남강동군고천면도덕리 (평양지국)

平南江東郡高泉面道德里		
團長	金柱鉉	二十六年
財務	金洛용	三十四年
書記	金萬寬	三十七年
團員	李應엽	三十四年
團員	金淳鉉	二十三年
團員	金應禮	二十六年
團員	李祖赫	二十一年
外五名未逮捕		

(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 티 평양디방법원검사국으로 송치ᄒᆞ 호얏다 더라 (평양지국)

다 디평팔년제령 미쳐 칠호 위반으로 밋춤 한 그만 쓰 人을 일 ᄒᆞ다가 꿀 쎄 신 이 되 지 리 도 일 치 안 코 흔 지 조 혼 긔 회 만 오 라 오 면 직 셔 로 너 악 만 상 쥰 ᄒᆞ 야 엇 지 거 될 만 흔 치 료 를 업 서 인 후 오 래 적 립 금 을 각 분 ᄒᆞ 야 가 지 고 의 명 부 와 및 규 측 을 불 살 은 후

秘密結社崇義團員 金洪錄等逮捕

단총을 휴디ᄒᆞ고 군자금을 모집ᄒᆞ든 김홍록 등은 취조를 맛치고 검사국으로 압송

一日 平南警察部發表

김홍록(金洪錄三九)은 교묘ᄒᆞᆫ 게경관의 그물을 버서나 어디로 종적을 감추엇슴으로 그 디 지금ᄭᆞ지 무한ᄒᆞᆫ 활동을 계속ᄒᆞ야 오든 즁 근일에 관ᄒᆞ야 덕천 방경찰서에 (陽德署) 에 탐지ᄒᆞᆫ 바 되야 지 나 간 삼월 십칠일 경에 함경남도 문천군 운림면 발렁 (咸南文川郡雲林面鉢嶺) 이라는 수목이 어우러진 ᄉᆞᆫ 々 한 김흔 산즁에서 당국 의 수 비ᄒᆞ 야 조선독 립 당국 그 단 원 의 일 원 이 되 야 그 단 원 들 이 거 위 되 엿 ᄒᆞ 는 바 ᄒᆞ야 그ᄯᅢ에 그 단 와 및 경 고 문 을 밀 송 ᄒᆞ 야 다 가 만 쥬 로 ᄒᆞ 는 바 ᄒᆞ 고 그 외 의 세 비 상 스 의 일 쳔 원 을 뎡 ᄒᆞ 야 평 양 으 로 부 터 군 자 금 을 모 집

작년봄 벽두에 평안남도 성천군 (平南成川郡) 에서 만흔 청년을 오 빌 원 파 동 면 최 병 황 (崔炳晃) 의 집 에 서 군 자 금 오 빌 원 파 동 면 최 병 황 (崔炳晃) 의 집 에 서 ... 봉 품 (石峰里) 의 집 에 서 ...

리삼빅구십오번디 (平南成川郡三德面雙林里三九五) 에 거 주 ᄒᆞᄂᆞᆫ 김 홍 록 은 작 년 봄 ... 군의 총 가 지 고 군 자 금 을 모 집 ᄒᆞ 며 경 고 문 을 도 가 가 다 독 립 셔 류 를 압 수 ᄒᆞ 야 조 선 독 립 의 단 원 이 되 야 ...

숭의단을

조직ᄒᆞᆫ 후 단원의 인장을 자긔가 간수ᄒᆞ고 그 ᄃᆡ 한 건 ᄒᆞ 야 국 외 에 만 흔 활 동 ᄒᆞ 다 가 작 년 삼 월 경 에 일 이 ᄯᅳ 게 된 우 단 원 박 돈 유 (朴敦수) 와 갓 치 긔 덕 팔 (金德八) 이 라 ᄂᆞᆫ 부 호 에 게 군 자 금 삼 빅 여 원 을 청 구 ᄒᆞ 야 맛 츰 닉 취 ᄒᆞ 후 로 ᄂᆞᆫ 권 총 을 휴 디 ᄒᆞ 고 ...

朝鮮에 唯一인 飛行家安昌男君

비힝기 술은 도로혀 선싱을 압두ᄒᆞ게 되야 멀지 안이ᄒᆞ야 이 비힝학교 조교수가 된다

이번 친일 만조선인 동포즁에 비힝가 (飛行家) 로 기술이 우수ᄒᆞ고 인격이 집글ᄒᆞ야 일반 일본인 ᄭᆞ지도 찬성이 자々ᄒᆞ야 실로 우리 조선인의 만장의 광휘를 토ᄒᆞ게 ᄒᆞᆫ 기술가의 디표적 인물은 오직 경성뎡동일오번디 (京城貞洞一五番地) 에 출싱ᄒᆞ야 일본 쇼률비힝학교 (小栗飛行學校) 를 우슈ᄒᆞᆫ 성적으로 졸업ᄒᆞᆫ 당년이 십일세된 안창남(安昌男) 군이 ᄒᆞᆫ 사람 ᄲᅮᆫ이다 안창남군은 다민 가 학일ᄒᆞ고 조선에서 고등보통학교 를 졸업ᄒᆞ고 사상이 주도ᄒᆞᆫ 인격이 슐이 우슈ᄒᆞᆫ 만안어리 인격이 닝용감ᄒᆞ며 강의ᄒᆞ고 친절ᄒᆞ 인물로 조선에서 고등보통학교 를

비힝가에

ᄯᅳᆺ을 두고 동경적 우교안 (赤坂) 에 잇는 비힝의 제작쇼에 드러가 비행긔 ᄒᆞᆨ 긔 제 작 쇼 에 도 러 가 비 힝 긔 구 조 방 법 과 조 직 등 에 디 ᄒᆞ 야 충 분 히 연 구 ᄒᆞᆫ 후 에 그 이 듬 히 팔 월 다 ᄯᅡ 시 신 력 파 포 부 를 가 지 고 류 큰 비 힝 학 교 에 입 학 ᄒᆞ 얏 다 교 장 쇼 류 (小栗) 상 팀 랑 (小栗常太郞) 씨 ᄂᆞᆫ 미 국 에 셔 비 힝 술 을 학 과 긔 계 학 을 죠 회 ᄒᆞᆫ 바 되 신 포 부 를 안 고 건 너 온 비 힝 가 인 ᄃᆡ 미 양 연 습 성 입 학 에 되 ᄒᆞ 야 엄 밀 한 조 사 를 ᄒᆞᆫ 후 에 입 학 을 허

자동차학

교에 드러 군지 삼 긔 월 만 에 상 당 ᄒᆞᆫ 운 천 수 의 면 허 장 을 밧 게 되 얏 다 그 러 나 군 은 싱 활 난 으 로 인 ᄒᆞ 야 일 본 에 건 너 간 것 이 안 임 으 로 곳 쳔 공 을 경 복 ᄒᆞ ᄂᆞᆫ

비힝의 성시 일본 ᄂᆞᆫ 판 으 로 건 너 가 사 입 강 평 (立江正太郞) 씨 와 장 파 위 (本庄波衛) 씨 ᄂᆞᆫ 안 동 령 렵 십 가 이 라 고 ᄒᆞᆫ 만 ᄒᆞᆫ 일 본 인 본 사 의 싱 활 은 일 디 라 져 을 당 ᄒᆞᆫ 지 심 만 명 의 다 수 ᄒᆞᆫ 조 션 사 름 이 쥬

日本에 移住한 朝鮮人三十萬

여비가 업서 도라오지도 못하겟고 가위 진퇴유곡의 난처한 모양이더라

작년십이월말현재조사에 의지ᄒᆞ면 일본에 와서 거주ᄒᆞ는 조선인으로서 일본에이야 보건ᄃᆡ 조선인 가실로 삼십만인가량이 주호자가 되고 ᄒᆞᆫ 사업에 나되나 그들의 직업을 보면 그 즁에 ᄒᆞᆨ싱이나 장사ᄒᆞ는 자도 잇지 만 흔 부분이 로동에 종사ᄒᆞ는 자 인듸

로동자즁

에는 공업이 나 광업에 종사ᄒᆞ는 자가 다수ᄒᆞᆫ바 작년 지재(財界)의 반동된 이래로 공업이우 파업 ᄒᆞᆫ 지재를 당ᄒᆞ야 흑은 폐지도되고 흑은 사업의 범위를 축쇼ᄒᆞ야 모또르 로동자들 즁 에도 다수히 회고식히 ᄂᆞᆫ 결파 조선인 로동자들도 직업을 일혼자가 쇼ᄒᆞᆫ 다수에 달ᄒᆞ야 상당히 곤란을 맛본 다ᄒᆞᆫ즉 셩ᄒᆞᆫ 조선으로 도라올 니야 ᄒᆞᆫ 후 ᄯᅩ

여비가 업서서

도라올 수 모 쇼 ᄯᅩ 도 쟝 착 ᄒᆞ 야 ᄂᆞᆫ ᄒᆞ 야 ᄃᆡ 밧 ᄂᆞᆫ ...

엡윗青年會講演

인천 엡윗청년회 에서 ᄂᆞᆫ 오는 칠일 오후 팔시 브터 강연회 를 기최ᄒᆞ다ᄂᆞᆫ듸 연사 ᄂᆞᆫ 하상훈, 리범진, 정청운 (河相勳, 李範鎭, 鄭淸雲) 삼씨오 연제 ᄂᆞᆫ 오직 김성운 (金成運) 이라 더라 (인천지국)

善隣校修學旅行

경셩부 평이 ᄂᆞᆫ 선린상업학교 (善隣商業學校) 에서 ᄂᆞᆫ 동 교 삼학년 성 일 동 이 갑을 명 (甲乙丙) 삼조 에 분 ᄒᆞ 야 오 일 유 일 량 일 을 두 고 기 경 (開城) 평 양 (平壤) 진남포 (鎭南浦) 안 동 현 (安東縣) 신의 주 (新義州) 로 향 ᄒᆞ 야 각 수 학 려 향 을 ᄒᆞ 기 로 되 ᄂᆞᆫ 이 오 날 오 침 ᄯᅥ ᄂᆞᆫ 남 디 문 을 ᄯᅥ 낫 다 더 라

京工專修學旅行

경셩공업전습쇼 ᄂᆞᆫ 문학과 와 및 동교부속 공업전습쇼 싱 도 이 십 칠 명 은 직 원 사 명 의 인 솔 노 작 일 오 참 에 남 대 문 발 렬 차 로 탑 승 ᄒᆞ 고 구 주 각 디 와 디 만 공 ᄂᆞᆫ 련 차 (?) 슈 학 기 를 시 찰 ᄒᆞ 기 위 ᄒᆞ 야 구 일 동 안 셩 ᄒᆞ 기 로 ᄒᆞ 는 바 도 라 오 ᄂᆞᆫ 이 십 일 일 귀 일 할 예 정 이 라 더 라

引渡된 馬賊 死刑執行

조금도 두려워ᄒᆞ지 안이ᄒᆞ고 단두디에

안동현으로부터 조선으로 압송된 마적의 남자 ᄒᆞ 야 ᄃᆡ 지 나 관 으 로 인 도 된 마 적 이 빅 여 명 은 지 나 관 쳥 에 셔 시 베 를 ᄒᆞ 야 안 동 현 사 하 진 부 방 동 쳐 사 ᄒᆞ 야 ᄃᆡ 조 감 (安東縣沙河鎭北方東側) 서 셕 (署) 에 슈 용 즁 이 던 바 오 월 일 일 봉 련 고 등 심 판 청 (奉天高等審判廳) 으 로 부 터 사 형 의 판 결 (判決) 을 밧 게 되 얏 다 ᄂᆞᆫ 도 착 ᄒᆞ 야 말 ᄒᆞ 야 거 려 고 조 ᄒᆞ 야 조 선 인 을 잡 아 갓 치 몰 살 ᄒᆞ 야 그 두 목 이 되 얏 던 쌍 룡 (雙龍) 은 오 모 두 려 운 력 도 ᄀᆞ 시 삼 십 명 의 죽 은 시 체 를 다 보 고 ...

支那官軍 馬賊과 格鬪

차홉ᄒᆞ다가 가비

동쳥촌 (東寧縣三岔口) 지나홍성보병 데 삼 단 데 삼 영 장 (龍井村支那混成步兵第三團第三營長王林) 은 요 사 이 부 하 삼 빅 여 명 을 인 솔 ᄒᆞ 고 마 젹 을 토 벌 키 위 ᄒᆞ 야 출 동 즁 이 던 바 ᄂᆞᆫ 녕 현 삼 분 구 (東寧縣三岔口) 에 서 우 세 ᄒᆞᆫ 마 적 파 츙 돌 이 되 얏 런 장 (連長) 이 하 빅 여 명 이 관 사 ᄒᆞ 얏 다 더 라

義州面協議員 李民濟氏의 誤想

조긔의 처사ᄒᆞᆫ 것은 성각지 안이ᄒᆞ고 남을 원망ᄒᆞ

하々 세상에 우슈 운도 만코 가엽슨 쇼리도 만리의 주군의 주면 (義州郡義州面) 호조 신문 (朴 ...) ᄒᆞ 야 민 정 이 오 ᄅᆞ 기 로 협 의 원 의 쥬 목 을 불 공 평 ᄒᆞᆫ 것 은 정 당 ᄒᆞᆫ 안 사 실 이 오 되 협 의 원 제 군 의 반 성 을 저 촉 홈 인 ᄃᆡ

협의원은

조 긔 잘 못 한 것 은 싱 각 지 안 이 ᄒᆞ 고 신 문 에 게 저 ᄒᆞ 야 협 의 원 의 손 해 를 ᄒᆞ 고 려 ᄒᆞ 야 ... 은 신 문 에 게 ... 가 되 는 지 긔 다 ...

리민제씨

의 말을 드른즉 이 과연 헤 人 말 이 라 ...

일보상에

게 저 혼 것 은 만 々 ...

시사신문

지 국 장 이 라 ᄒᆞ 며 ...

겨날바가

업다 일보에 긔지 ...

그디는그

리 지 못 ᄒᆞ 야 호 별 ...

다른사름

이 협 의 원 오 로 ...

活動家의 米國婦人

일본을 경유ᄒᆞ야 상히로 향ᄒᆞ얏다

미국인구미동맹회 (購買同盟會) 부인회 회장으로 문화운동 부인참정권운동가로 유명ᄒᆞᆫ 천야총일랑 (淺野總一郞) 씨의 초ᄂᆡ회에 ᄅᆡ석ᄒᆞ야 연셜을 ᄒᆞ고 ...

普通校設立阻止

중화민국의 법권을 무시ᄒᆞ고 일본의 교육령에 복종ᄒᆞᆫ다고

중국화룡현 룡신사 승디촌 (和龍縣勇神社勝地村) 에 주거ᄒᆞᄂᆞᆫ 조선 사람 들은 오래 전부터 조선 총독부 교육령에 의ᄒᆞ야 보통학교를 설립ᄒᆞ라고 ᄒᆞ얏슴으로 지교를 설립ᄒᆞ라고 열심으로 준비ᄒᆞᆫ 즁 그 ...

和龍縣在住朝鮮人의

本町署의 檢病的調査

長江好를爲하야 復讐

支那官憲 密輸食鹽押收

압수ᄒᆞᆫ 소곰은 지나관리가 모다 파러 먹엇다나?

黑龍州에 在한 朝鮮人傭兵

眞正한 黑死病者 七十六名死亡

길거리에 거러 단이다가 도쥭는 자가 만히 잇다고

朝鮮時報事件

旅行中의 日本人을 狙擊

札幌大火 千戶燒失

손히는 오륙미상

天氣豫報	
日出 上午五時九分	日入 下午七時十三分
曇小雨晴	自四日 至五日 後六時
溫度 廿六日最低五一、六	廿七日正午七一、三

廣告

京城覆審法院判事의職을辭ᄒᆞ고左記場所에셔辯護士業務에從事홈
京城府淸進洞一四七番地 (捕廳橋上川邊)
辯護士 文澤圭
電話 一三九五番

最新洋式建築設計製圖、工事監督預 (?) 鑑定、該功檢査、附土木工事
李醺雨建築工務所
京城府授恩洞 ... 奧田寫眞館二層樓上內
技術師 李醺雨

辯護士 李祖遠
事務所 釜山府瀛州洞五九三番地 長電話九一七番
京城府樂園洞一六四番地(塔下於藥局洞) 移轉 (住宅及事務所共通) 長電話三三七三番

金剛石

朴隱坡 作

十二、

팔번원을구여주든 그첫번도무엇ᄒᆞ가 변영이는 거짓말이드듯ᄒᆞᆫ뒤 소리로「뎡회씨- 왜 리철위ᄒᆞ시오? 그리지마오 우리인간이란 언제든지이와삿혼니회(苦海)에서 고락을골고루맛보며지닉는것이 곳우리인간이라오? 만약에 인간으로일평상을즐겁게만지닉게되면 우리인싱된가치가 어조ᄭᅵ는것이오 용뎡뎡회씨도 첩々히쌋안풀음이 얘는ᄯᅩ러서일어나는듯ᄒᆞ오만은 그러케설위마시오」ᄒᆞ며 자철ᄒᆞ고부드러운음성으로 친절ᄒᆞ게위로ᄒᆞᆫ다

뎡회는강영히 ᄂᆞᆺ김을억제ᄒᆞ고음음에ᄉᆞ인 옴조르씨「과연시금에 변영씨게서ᄒᆞ시는말슴을듯쟈오면 쇼년시딕보터 그고싱ᄒᆞ야오신것이 맛치쳐와갓혼고싱을 ᄒᆞ시는이로 이세상에ᄯᅩ잇든가? 의도싱각으로 자연히오린동안풍커잇든셜음이 한꺼번에일어나면셔 쳐의십칠년간 비참ᄒᆞᆫ럭사가 싱각이다시금나게되야 눈물이그러케쏘다집니다… 그러나오히려 이자리에셔 지각업시 눈물을흘녀셔 잘못되얏습니다 만습니다 용셔……』 친말ᄭᅳᆺ을 마ᄉᆞ치기전에변영이는 업든「피차에 갓혼동감으로 그려ᄒᆞ신것에 무삼잘못이잇스릿가자ㅣ그런말슴은 그만두고 묘혼말이 나하십시다」ᄒᆞ며 그만말의동을ᄭᅳᆫ니ᄂᆞ코 다시ᄒᆞ여방을향ᄒᆞ야「거기누가잇ᄂᆞ냐 오- 딕관철먹든것도 못다먹고 이ᄲᅢ셔지잇셧더니 이제야ᄯᅩ다시시장한싱각이나는구나무엇이든지 먹을것을 두시순비ᄒᆞ여라」ᄒᆞ면셔 먹을것을주문ᄒᆞ엿다

그엽방에셔 춘희 반월 잉무등 세게집이들은 입을맛되이고안져서변영과쥬인로파

변영이는 다시자긔오져잇든이층으로 고마운친고 리군과뎡희를 안니ᄒᆞ야 의자『椅子』ᄒᆞ나식을 차자ᄒᆞ고삼인이마죠안져자미잇는담화를 ᄒᆞ면셔 변영 이는뎡희 에게 디ᄒᆞ야 돈 팔빅원무여쥬든 친구를쇼기ᄒᆞ다

『자- 리군? 뎡희씨와 인사나ᄒᆞ고지ᄂᆡ야지 오날부터는엄마동안이든지 자비의게 근심을시길터인데……ᄒᆞ며 뎡희를쇼기ᄒᆞᆫ다 뎡희는아첫든자리에셔조용히일어나 고기를숙이여단정히례를ᄒᆞ며「져는 심뎡희『沈貞姬』이올시다 이와갓치 슐은 경우에 타락이된더러운사람을 위ᄒᆞ야 크신은혜를 베푸러쥬신것은 감격ᄒᆞᆷ을말삼무엇이라고 형언ᄒᆞ야 고ᄒᆞᆯ수업습니다」 리군이라사람은 뎡희의인사를바더「아! 천만의말슴이요 니야뎡희씨는 계딕ᄒᆞ야 무삼으헤가잇나요 모다변영씨의 힘이지요 이사람은 보리평양살든 리세영『李世榮』이리는사람으로 변영씨도말ᄒᆞ면ᄂᆡ쳐음이되는사람이오 장리에라도 친림히ᄒᆞ케ᄒᆞ야주시오」ᄒᆞ며 간단ᄒᆞᆫ딕답을ᄒᆞ엿다

리세영이의 말ᄭᅳᆺ이ᄂᆡ위변영이는 다시뎡희를보며『뎡희씨- 지금이량반의 말삼파갓치리세영씨는 나의 미ᄯᅮ가되는터이지요 그런니 나의미ᄯᅮ는 무엇을ᄒᆞ는량반인지ᄯᅡ셔히쇼기를ᄒᆞ지요 뎡희씨도가는바와갓치나의미ᄯᅮ는요사이면칠능안을두고 봉텬바닥에셔 만장의환영으로 키막(開幕)이되는 디텬마술단(大天魔)라는 유명ᄒᆞᆫ 마술단(魔術團)의 힌단장이되시는량반이지요」ᄒᆞ면셔 리세영이의 직업ᄭᆞ지 쇼기를ᄒᆞ얏다

리세영의 직업이 마술사일힘이라는말을듯은 뎡희는ᄭᅢ다작눈ᄂᆞ는모양이보이면셔 리세영의 얼굴을다시 변치여다보다가 얼는 얼는빗을곳치며 변영이를 되ᄒᆞ야『그러면 뎌텬마일힘의 화형마술사(花形魔術師)가되는묘령쇼녀가 곳변영씨의 미뎨가되신닷사오?』ᄒᆞ며 못는다변영이는「예- 그러치요 그것이 나에게는 오직ᄒᆞ나되는 누이동싱이라오 그러나직업이 넘어도 이상스러온직업을가졋지요만은 나의동싱의그동안력사도 별의별고구를력사가 만히잇셔가지고 어려셔미국(米國)ᄭᆞ지 굴너들어가게되야 엇더한인연으로 최면술(催眠術)과 긔괴ᄒᆞᆫ마술을 비워가지고 발셔몃히젼부터 마술게에는가장 핀왓으로 자긔를홈만치되엿고ᄯᅩ는셰상이모다 뎌텬마일힘은 유명ᄒᆞᆫ 마술단으로알게되는동시에 니동싱되는 텬마양(天魔孃)이라는 예명(藝名)을 누가몰을사롬이업슬만치되얏슴으로 각디로도라다니며 순업ᄒᆞᆫ회(巡業興行)을ᄒᆞ야 적지 안은 환영을밧는모양인가봄되다」

地方通信

簿記講習所開所式

本報에旣히揭載홈바와갓치平康簿記講習所는去五月一日午後七時부터平康青年會館에셔開會式을擧行ᄒᆞ얏ᄂᆞᆫᄃᆡ入學希望者가三十餘名에達ᄒᆞ야豫想以上의好況을呈홈은實로本青年會文藝部長李寅鎔君의盡力한結果요平康商業界를爲ᄒᆞ야歡喜ᄒᆞ는바이라午後十一時에閉會되얏ᄂᆞᆫᄃᆡ本所任員은如左ᄒᆞ더라(平康)

一所長金鶴植、學監李泰潤、講師李載극、會計全鍾秀

道巡查部長試驗

去四月三十日부터二日間江原道警察部에셔平康、鐵原、金化、淮陽、伊川、通川、江陵七郡의巡查日本人十六名、朝鮮人七名을平康에召集ᄒᆞ야巡査部長試驗을行ᄒᆞ얏는ᄃᆡ其試驗科目은如左ᄒᆞ더라(平康)

一、憲法 一、行政法 一、算術 一、作文 一、刑法 一、司法 一、朝鮮語

李起鍊君椅子寄附

平康郵便所에在勤ᄒᆞ던李起鍊君은今般伊川郵便所長으로赴任홈에際ᄒᆞ야平康青年會를永久히紀念키爲ᄒᆞ야本會에椅子五十個를寄附ᄒᆞ얏슴으로會員一同은君의特志를賛揚ᄒᆞ더라(平康)

石頭金融組合總會

本紙에旣爲報道ᄒᆞ얏거니와黃海道載寧郡上聖面青石頭金融組合에셔는第二回定期總會를四月二十九日에同池青石頭後圃松陰亭에셔開催ᄒᆞ고午前十一時에開會ᄒᆞ얏는ᄃᆡ組合長崔鳴翰氏의開會辭가有ᄒᆞᆫ後大正九年度收入支出決算報告가잇고當木理事의九年度決算에對ᄒᆞᆫ說明과任員改選의件과定款變更의件을提出ᄒᆞ매二百餘名組合員은滿堂一致로可決ᄒᆞ얏는ᄃᆡ大正九年度決算은如左ᄒᆞ더라(沙里院)

左記

一、總資金六千十三圓四十五錢也

一、純損金五千二百七十二圓五厘也

以上

慶北大運動會

慶北大邱達城公園에셔例年과如히五月一日에慶北各普校聯合大運動會를開催ᄒᆞᆫ바漆谷郡倭館普校三學年崔俊君이一等을取ᄒᆞ엿고金泉郡金泉普校에셔는四學年白圭三君이二等을取ᄒᆞ고同郡鳳溪普校에셔三等을取ᄒᆞ야萬歲聲中에霽氣가滿面ᄒᆞ야歸校ᄒᆞ얏더라(倭館)

經學研究會의盛況

忠清北道堤川郡의儒林側에셔昨年秋九月一日에經學研究會를創立ᄒᆞ고學을研究ᄒᆞ든바去月二十二日午前十時에堤川邑鄕校內에셔講習會를開催ᄒᆞ고各敎生에게七書를問答ᄒᆞ며經書에對ᄒᆞᆫ講論을行ᄒᆞ얏는ᄃᆡ敎生은七歲以上의妙齡三百四十二名이요儒生이四百餘名이요來賓과傍聽者가三百餘名에達ᄒᆞ야會場은立錐의地가無ᄒᆞ게되얏스며能通者가九割九分에達ᄒᆞᆫ바該敎生에게若干의賞品을授與ᄒᆞ얏고特히十歲以下七歲以上의小學、孟子、論語、詩傳一書義解釋에優秀人十六人에게二千餘名의儒林이賛才頌奇를不已ᄒᆞ며來賓中에셔若干의愛情을表ᄒᆞᆫ賞品이잇섯고午後六時頃에閉會ᄒᆞ얏는ᄃᆡ當日講師의氏名은如左ᄒᆞ더라(堤川)

講長『趙宇植』講師『李鍾震、金誠鎭、權相、金獻卿、李正夏、張弼榮、嚴錫찬』

碧城青年會運動會

海州碧城青年會主催로來七日(陰三月末日)에濯熱亭運動場에셔聯合春季大運動會를開催ᄒᆞᆫ다는ᄃᆡ他地方青年會에셔도多數參加ᄒᆞ리라ᄒᆞ며市內某私立小學校에셔도參加ᄒᆞ다는ᄃᆡ若二哩可量의遠距離競走도잇다ᄒᆞ며當日任員은左記와如히選定ᄒᆞ얏다더라(海州)

會長 金泳澤
總務 尹憲求
庶務 魯亨亨 金應教外九名
設備 吳世昌 劉훈면外十名
司令 元柄희 姜思欽外五名
競技 權寧鳳 崔容圭外六名
審判 李由직 下榮鎬外七名
施賓 劉亨榮 洪淳弟外六名
接待 崔景台 柳栢外十一名
衛生 韓宗수 李圭植外五名
警護 李출一 崔天永外十一名
廣告 張世忠 崔哲外四名

義州新案內(五)

蘭坡生 趙泰 說述

一、山川과道路

古津江은郡南三十六里所串面(今에古館面)에在ᄒᆞ야此江에水源이三이有ᄒᆞ니一은天摩山東南에셔出ᄒᆞ고一은德城背鶴山北에셔出ᄒᆞ고一은宣川背光山北에셔出ᄒᆞ야本面彌勒堂前에至ᄒᆞ야三派가合流ᄒᆞᄂᆞᆫ것이라淸流碧波에魚類는充滿ᄒᆞ나水面의平坦치못ᄒᆞ고淺灘이多홈으로舟楫의通치못ᄒᆞ며江心이陸地보다低홈으로灌漑의利로別無ᄒᆞ더니四個年前에不二會社農場의經營으로一百萬圓의巨額을投ᄒᆞ야地를鑿ᄒᆞ고浦를作ᄒᆞ며山을鑿ᄒᆞ야水口를開ᄒᆞ고此江水를用ᄒᆞ야灌川山面의旱田을灌漑ᄒᆞ야三千石餘의水田을作ᄒᆞᄂᆞᆫ大事業을成ᄒᆞ니라

玉江은郡北六十里加山面에在ᄒᆞᆫᄃᆡ江中에靑玉石이有ᄒᆞᆷ으로玉江이라稱ᄒᆞ며斷崖絕壁이環繞ᄒᆞ고綠水는沙汀相映ᄒᆞᆫᄃᆡ萬柳가深陰ᄒᆞ야煙波夜月에漁笛이時聞ᄒᆞ고山寺暮鐘에歸帆이飄飄ᄒᆞ고兩岸村落과斜陽이漂々ᄒᆞ야山間幽趣絕妙ᄒᆞᆫ佳境이오此地는鴨綠江沿岸에在ᄒᆞ야國境에重要ᄒᆞᆫ位置임으로前日에는江岸에城을築ᄒᆞ고萬戶를置ᄒᆞ얏다가壬辰以後에廢止되고現時는憲兵派遣所와巡查駐在所가有ᄒᆞ니라

行軍川은郡南二十里古城面에在ᄒᆞ니前朝太祖大王이威化島로브터回軍時에此川을通ᄒᆞ다가馬를飮ᄒᆞ며軍을駐ᄒᆞ얏슴으로後人이仍名ᄒᆞ니라

遷驛은郡南五十里光城面에在ᄒᆞ니昔壬辰에宣祖大王이駐驛ᄒᆞ셧슴으로後人이仍名ᄒᆞ니라 此次後古蹟論에詳述ᄒᆞ겟노라

隱德池와郡浪浦(原名多乙那江)郡南四十里光城面에在ᄒᆞᆫ鎭兵浦와郡南四十里桃晄面에在ᄒᆞᆫ元津浦와郡南十里松長面에在ᄒᆞᆫ鳥沐浦等의諸各川이有ᄒᆞ니라

道路로論ᄒᆞ면南으로龍川을通ᄒᆞ는路와東北으로龜城朔州兩郡을通ᄒᆞ는路가有ᄒᆞ고西邊一帶는鴨綠江이橫流ᄒᆞᄂᆞᆫᄃᆡ龍川을通ᄒᆞ는路는京城으로直通ᄒᆞ는大路라故로古來로路勢가平坦ᄒᆞ야人馬荷車의通行이無碍ᄒᆞ얏거니와龜朔兩邑을通ᄒᆞ는路勢는險幅이狹窄ᄒᆞ고泰山峻嶺이漸々ᄒᆞ야屈曲이甚ᄒᆞ야行客은步行ᄒᆞ는外에他道가別無ᄒᆞ며或時便宜를圖得ᄒᆞ려면騎馬로運送ᄒᆞ야物貨運輸의不便과行客의困難이非常ᄒᆞ더니現時는新作路가開通됨을因ᄒᆞ야自働車馬車의通行이無碍ᄒᆞ고運輸의便宜ᄒᆞᆷ과步行의無難홈을得ᄒᆞ얏나니라(未完)

初戀

雲坡生(寄)

一、少女ー 少女ー 少女! 오를답고 어엽분 少女ー 神聖ᄒᆞᆫ 하ᄂᆞ님의 딸갓치 사랑스런그딕 그딕의오를답고 고흔맵시 너가다ᄋ노니 모다져ー世上사람이 알고셔 讚美ᄒᆞ리라

二、六月에 핀 붉고 붉은 薔薇ᄭᅩᆺ 갓ᄒᆞ며 오참회에 피여나는 百合ᄭᅩᆺ갓고 和蘭女皇의 고흔 손手巾 갓치 아름답고 부드러운 그딕의 살빗

三、天堂에셔 아뢰는 神曲 보다도 봄철에 지져귀는 꾀고리 쇼리갓치 奇妙ᄒᆞ고 그리운 그딕의 쇼리

四、금음날 어둔밤에 반작이는 星의빗갓고 바위틈에 나뷔기는 죽기 눈갓치 淡々ᄒᆞ고 영동ᄒᆞᆫ 그딕의 瞳子ー

五、나날이피여 나는桃花빗 갓고 바야ᄒᆞ로 입버가는 梅花ᄭᅩᆺ 갓혼 사랑의 술잔 ᄂᆞᆫ 술금々된 입살ー

六、少女ー 少女ー 少女ー 그딕의 안가슴에 ᄯᅩ々ᄒᆞᆫ 계밧치잇는 무엇보다도 더사랑스러온 어엽분 오다님을 바르녀물 그딕의 第一貴ᄒᆞᆫ乳房ー

七、사랑에넘쳐셔 가삼이올넝거릴ᄯᅢ 自然히 서로갓가와질ᄯᅢ 大理石을 깍가논듯 반질거리는 그딕의 ᄯᅡ 牛乳빗이 搖々ᄒᆞᆫ 그딕의 ᄯᅡ

八、少女ー 少女ー 少女ー 뜻을 슴ー 實노 美麗ᄒᆞᆫ 그딕는 貴ᄒᆞᆫ 보물의主人 어엽부고 곡々ᄒᆞᆫ 입술 貴重ᄒᆞ고 貴重ᄒᆞᆫ 그딕의몸 오ー『리얼』의 實物을가지고 실혼딕로 恰足히 바드리라

九、그딕의사랑ᄒᆞᄂᆞ니情은 四海의물이 다마르고 모리도 泰山의바위가 부셔지도록 나는노ー 그딕을사랑ᄒᆞ리니 그딕의비진바 香氣로운 사랑의술 그딕의술씨로만든 美麗ᄒᆞᆫ 면려관 너의손오로ᄯᅥ라주며 씨워줄 써노 오ー나의所願은그게뿐실픈ー

(四二一、戀人을싱각ᄒᆞ고)

사랑ᄒᆞ는 李敬煥을思ᄒᆞ고

木浦開城旅館에셔 尹 生

父母를바리고 親戚을바리고 四方에漂浪ᄒᆞ며 날이칠튼더을든리ᄒᆞ든우리兄弟가今生에무슨罪가이그리만앗든지各處에셔로分離ᄒᆞ야消息좃차런어지고마랏구려

陰曆으로昨年十二月二十一日午後六時頃인듯ᄒᆞ오 木浦驛奔走ᄒᆞᆫ속칠석락ᄃᆡ로홈에셔君과어금ᄂᆞ작別을告ᄒᆞᆯ 無情의야속ᄒᆞᆫ汽笛一聲에汽車는軌道를좃차구르는바퀴소리로더부러멀니北便을向ᄒᆞ야자최가업셔지나ᄯᅥᄂᆞᆫ車그뒤에惶忙ᄒᆞᆫ발길을머물고시름업시四方 살펴보니ᄒᆞ날에오르는거문煙氣조차形跡을감추엇고다만롤ᄯᅥ이나마잇는것은볼사록가는ᄒᆞᆫ줄의「레ー루」ᄲᅮᆫ이라「(모든悲感을ᄯᅩ는ᄯᅢ레ー루아셔)이다루ᄂᆞᆫ恨心일갓고隱々이들니는機關소리ᄂᆞᆫ千기르집히마음에다 시만날期約이 머되든것을怨망ᄒᆞ는오ー르소리자츠도다

오ー가장사랑ᄒᆞ는李君이여 余는그나마오리모?안ᄯᅳ락로ᄒᆞᆫ에셔自由가업셧나다만ᄯᅥ나신君은뒤를向ᄒᆞ야(눈감고입속으로)將來를付託ᄒᆞ는말ー뒤ᄒᆞᆫ말두어마되붓쳐두고가장天然ᄒᆞᆫ態度으로活潑ᄒᆞᆫ거름을催促ᄒᆞ야竹洞城旅館으로도라와君과멋칠동안버기를갓치ᄒᆞ든第四號室을當到ᄒᆞ니불한蘆田녀는들이 예이른孤뢰과如히오락가락方向을定치못ᄒᆞ니頭腦의觸感되는것은離別ᄒᆞᆫ恨이요나음의남은것은ᄭᅳ니을수업는友情이라

아ー사랑ᄒᆞᄂᆞᆫ李君이여余는오린동안隔阻ᄒᆞᆫ懷想을못ᄒᆞᆫ뜻으로다ᄒᆞ기어려운故로删去ᄒᆞ고먼져君의平康홈부터뭇고져ᄒᆞ노라 別로知己가젹음도 나의劣ᄒᆞᆫ料法으로大槪는올겟다 자조片紙라도ᄒᆞ야一片氣脉을나通ᄒᆞ고십지마는붓을들면滿腔이無非悲劇을成ᄒᆞᆫ는故로모든心懷를抑止ᄒᆞ고오늘々지와 셧ᄂᆞᆫ마는中情에셔된懷抱를山갓치싸ᄋᆞ두고ᄒᆞ나도펴지못ᄒᆞ니時々로싱각는마음이아직엇스리요無異同己友로四海에雲遊ᄒᆞ며悲境에도잇셔人工樂園의삶도무엇스며余를理解ᄒᆞᄂᆞᆫ無限ᄒᆞᆫ同情을表홈은君外에ᄯᅩ누가잇셧ᄉᆞ나 깁븜이잇셔도君을숨표음이잇셔도君이여이엇ᄉᆞ지요

아ー余의사랑ᄒᆞ는李君이여只今君과涯角에ᄯᅥ러져잇셔 ... 悶ᄒᆞ니보고도십거니와십흔말은엇지이리만은지몸이비록흘은들千里江山머나안으로ᄯᅥ여가셔君의부드러운손을잡고ᄯᅩᄯᅩ々同情에醉ᄒᆞ야그딕로몃날몃달이라도미々ᄒᆞᆫ情緖를남져지업시풀고져ᄒᆞ되모든世上事가마음딕로만나고나뉘며길기고슬퍼ᄒᆞᆯ수업는것뿐셔그려ー

오ー사랑ᄒᆞᄂᆞᆫ李君이여雪寒에作別ᄒᆞ고오날을當ᄒᆞ니日暖風和ᄒᆞ야處々에香花芳草爛熳華麗ᄒᆞ니春色이입의길을놉히닷치고오고가는貴公子와계여人々은人々불길어ᄂᆞᆫ血人々消息을寂寞ᄒᆞᆫ遠山下에셔듯는뜻만經過ᄒᆞ니抑鬱ᄒᆞᆫ世光을哀情히보너는줄엇더케이되로견되고지니자ᄒᆞ니傷心ᄒᆞ는입말고動ーᄒᆞ자ᄒᆞ니事不如意ᄒᆞ야所志所營이未一就ᄒᆞ니心○浮動에오々然無一時快樂이요秋風에落葉ᄯᅢ를當ᄒᆞᆫ듯ᄒᆞᆫ身이오슬々실낫ᄀᆞᆺ치엉키고엉키ᄂᆞᆫ心情을걷잡을바이업네

오ー사랑ᄒᆞᄂᆞᆫ李君이여언제ᄂᆞ언제ᄂᆞ우리도目的을세우고춤의調를마치여希望이가득ᄒᆞᆫ樂園의門으로平和歌를高唱ᄒᆞ며볼가오니라君의굿센腕拳과壯ᄒᆞᆫ決心은必히지금그天地에셔成功이잇슬줄自信ᄒᆞ며君의입에셔ᄂᆞ오ᄂᆞᆫ行進曲은반다시天地가動色이될것이요君의快活ᄒᆞᆫ춤에ᄂᆞᆫ千罷萬馬가ᄯᅱ놀갓치興致잇ᄂᆞᆫ長短을맛칠것이다

人生○藝術○은○나○라○의○보○빈○요○民族○의○자○랑○이○라○눈○물○을○흘○닌○者○가○아○니○되○天○道○의○慈○悲○를○도○々○지○요○寃○術○이○解○ᄒᆞ○는○者○가○오○ᄂᆞ○니○면○人○生○의○樂○園○을○못○볼○지○라○文○章○은○덜○ᄒᆞ○며○詩○歌○을○詠○ᄒᆞ○고○書○齋○에○셔○琴○을○奏○ᄒᆞ○모ー天○意○에○그○러○진○煩○悶○懊○惱○ᄒᆞ○우○리○人○生○은○ᄒᆞ○야○금○莫○理○ᄒᆞᆫ○갓○기○운○安○樂○快○樂○한○世○界○로○引○導○홈○이○니○이○크○고○苦○은使命을가진君은 然ᄒᆞ責任무겁기千萬斤이오난가君이여君이지금가는길이가장崎嶇ᄒᆞ고가장險峻ᄒᆞ나그使命을다ᄒᆞᆫ진딕그幸福이우리人生全體에及ᄒᆞᆯ것이다

아ー사랑ᄒᆞᄂᆞᆫ李君이여將次이압헤슬픔과괴로옴은決코우리가關知치안으리오ᄂᆞ니前日머엇든그마음그精神그決心그態度는언제ᄭᆞ지變치말고ᄯᅩ바른외줄기길로우々작々더옥々々猛進ᄒᆞ여쥬시게余ᄂᆞᆫ오모興韻도업시無依客窓獨處ᄒᆞ야數卷의雜誌와메ᄉᆞ장의新聞을가지고歲月을보ᄂᆡ오니何時에나好道理가잇슬ᄂᆞᆫ지오즉目前商量이杳然ᄒᆞ오니自笑自嘆ᄒᆞᆯ일이로다

아ー사랑ᄒᆞᄂᆞᆫ李君이여只今君은어ᄂᆡ곳에셔춤추고노리ᄒᆞ는가질거운ᄯᅢ에슬품을想覺ᄒᆞ고安樂ᄒᆞ는날에괴로옴을覺悟ᄒᆞ라는말을前부터만히드러입記憶ᄒᆞ엿것만는엇지그리無信ᄒᆞ엿든가 오ー사랑은李君이여某條某어딘를가든지자존확信ᄒᆞ야에杳寂한마음을慰勞ᄒᆞ야쥬지어ー心中에가득찬懷抱를글로써代身코져ᄒᆞ오나形便上에ᄭᅥ느치오며우리의前道와新文化를報知ᄒᆞᄂᆞᆫ우리朝鮮日報의貴重ᄒᆞᆫ紙面을借得ᄒᆞ야無限ᄒᆞᆫ誠意로써君의將來와成功을祝ᄒᆞ노라

社告

今般事情에依ᄒᆞ야開城支局의位置와任員을左記와如히變更ᄒᆞ얏사오니愛讀僉位는照亮ᄒᆞ시옵

新位置 開城郡松都面東西里三三三番地

支局長 具昌謨
總務兼記者 韓大植
外務員 孫啓臣

朝鮮日報社

謹告

今回江原道鐵原郡鐵原面官田里一五〇番地에本報支局을新設ᄒᆞ고記入을支局長으로定ᄒᆞ고新聞販賣通信及廣告를取扱홈

支局長 李學洙

今般咸北慶興郡雄基面雄基洞에雄基支局을設置ᄒᆞ옵고左記와如히任員을選定ᄒᆞ야新聞販賣及廣告取扱等一切事務를取扱케ᄒᆞ오니愛讀僉位는照亮ᄒᆞ시기바라나이다

支局長 金龍學
總務 崔錫華
記者 金德信
外務員 金鳳先

朝鮮日報社

謹告

本支局長廉世鐘氏는管內各郡視察用務로記者李錫珍君을帶同ᄒᆞ고四月三十日午後一時에榮山浦方面으로出張ᄒᆞ엿사오니愛讀諸位照亮ᄒᆞ시옵

朝鮮日報 光州支局

廣告

今般本支局記者玉珍千君이本報發展ᄒᆞ기爲ᄒᆞ야漆谷、星州、善山三郡間에約一個月假量出張이오니愛讀僉位는照亮ᄒᆞ시옵

本報愛讀僉位의便利를爲ᄒᆞ야倭館驛前에取扱所를設ᄒᆞ야一層擴張ᄒᆞ옵고廣告及地方通信諸般事務를取扱케ᄒᆞ오니愛讀家僉位는倍前愛顧ᄒᆞ야주시기를千萬仰要

取扱所主任 玉華珍

朝鮮日報 金泉支局

佐藤病院

內科小兒科 外科花柳病 (入院隨意)

仁川 (電話四〇九番)

院長 佐藤小五郎 トクトルメチチーラネ

辯護士 法學士 近藤藏 事務所 忠清北道忠州支廳前

◎身體는不可不强健

身體는萬事之本이니不可不强健이로다……然則身體에强健은何에求함이可ᄒᆞ고……此는經驗者ㅣ多ᄒᆞ니必히大力丸에問ᄒᆞ지니라……좀得策에金言이오

壯筋補血 大力丸

主治効能
○壯筋補血 ○氣虛血枯
○夜夢遺洩 ○飲食不化
○先天不足 ○腎氣不足
○精神困倦 ○面黃骨瘦
○神經衰弱 ○陰虛火動

定價
壹個月分 四圓五十錢
貳個月分 八圓五十錢
參個月分 十二圓

京城義州通二丁目六番地
製造本舖 洪濟堂大藥房
主 李敏洪
電話 二六五四番 振替口座京城四五八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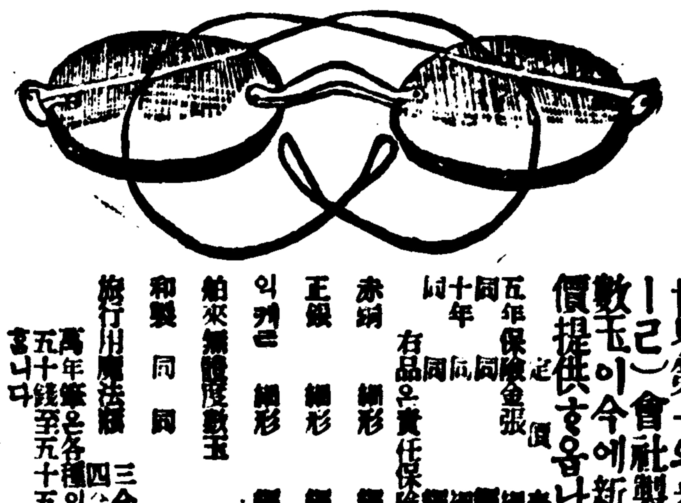
純고무經濟靴及洋靴는 大陸고무 限에홈

種類		小賣代價
純고무	小兒用	壹、四〇〇
	小	壹、八〇〇
	中	貳、〇〇〇
	大	貳、五〇〇
經濟靴	大	貳、五〇〇

純고무 洋靴 文數	紐無	紐付
六、七文	壹、四〇〇	
八文以上	貳、〇〇〇	貳、貳〇〇
九文以上	貳、參〇〇	貳、五〇〇
十文以上	貳、七〇〇	貳、九〇〇

男用鮮靴洋靴 女用鮮靴其他各種一足送料十四錢十足以上은特別割引方法取扱店을望希ᄒᆞᄂᆞᆫ者에본所로問議ᄒᆞ심을

京城府鍾路通一丁目四十七番地
大陸고무工業所總販賣部
電話長七六五番 振替京城七三三番



眼鏡 魔法瓶 萬年筆

世界第一의米國(오ᄲᅡ지카ㅣ己)會社製金張眼鏡과度數玉이今에新着ᄒᆞ여삽기廉價提供ᄒᆞ옵나니다

定價表
五年保險金張 四圓五十錢
十年同 五圓五十錢
同 四圓 五十錢
有品은責任保險證이有홈
赤銅縁 自二圓八十錢至七圓
正銀縁 自三圓五十錢至四圓五十錢
니켈縁 自一圓五十錢
舶來無鏡度數玉 自三圓五十錢至四圓五十錢
和製同 自一圓五十錢至二圓八十錢
旅行用魔法瓶 二圓三十錢
萬年筆은各種이有ᄒᆞ오니五十錢至五十五圓ᄭᆞ지바修繕도精密히홈니다

商 星眼堂
京城鍾路二丁目一五番地 振替京城七八六一
朴泳和 李明信

全譯 쳣사랑
露文豪트ー르게네푸作 蘭波 洪永厚氏譯
最新刊
四六版美裝 最上製美本 定價六十錢 送料九錢

本書는露國文豪트ー르게네푸氏의傑作으로戀愛小說中有數한者인ᄃᆡ英譯과日譯을對照ᄒᆞ야가장完美ᄒᆞ게翻譯ᄒᆞ엿슬ᄲᅮᆫ아니라卷末에는이小說中의모든人物의原名을原語로記載ᄒᆞ얏슴으로本書에依ᄒᆞ야우리는힘안드리고모原書를읽는것과조곰도다름업는原作者의獨特ᄒᆞᆫ筆致를맛볼수잇도다至今ᄭᆞ지朝鮮文壇에는西洋小說의翻譯된者가一二에지나지못ᄒᆞ고그나마도모다翻案이나抄譯이던바本書는原文에서一言一句도ᄲᅢ이지안은全譯인즉實노朝鮮翻譯界에는初有ᄒᆞᆫ名作이될지라十六歲의少年이年長ᄒᆞᆫ處女에게心身을다바쳐서戀慕ᄒᆞ다가自己의親父에게戀人을ᄲᅢ앗긴悲戀의物語中에는多情多感ᄒᆞᆫ敍情詩人의一面을窺視ᄒᆞ기에足ᄒᆞᆯ것이로다

發行所 京城光化門局私書函九號 振替口座京城八三九番 廣益書館

이마업 이후에졈 초홍왕되옴 은경향제위에이 고의호ᄒᆞ신후은지 되이오며폐졈공무에 견실미려지치이옵시다
지방에셔 수찰로쥬문ᄒᆞ시 나되ᄂᆞᆫ 인환소포로신속수용홈

李聖基 金銀商 (일봉ᄒᆞ여 되ᄉᆞ지ᄉᆞ명) (월외남 제혼 면문)

폐졈 혼닌제구에 금은보옥과 부인소아에 장식 픽물등불구다소ᄒᆞ옵고무불 구비ᄒᆞ오니 경향간 이고ᄒᆞ시 눈남녀제위 는영속쥬문ᄒᆞ여 쥬시면 신속슈응ᄒᆞᄀᆡ삽 나이다

폐졈져조품에 견실미려홈은 화실담보홈

京城府蓬萊町 壹丁目四番地

春期特別割引

參百個限 參百個限

最新流行 銀側 時計 時間正確 銀製實側치마票時計 定價十七圓 特價金拾參圓

不變色金張眼鏡 保證附大學五圓五十錢 特價金四圓

時計眼鏡各種修繕 ... 普信堂時計舖

京城鍾路二丁目大客地 電話八八三番 振替京城一八五一番 主 李